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01~03] 다음은 학급에서 실시한 토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교내 매점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정리한 후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1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매점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먹고 그 쓰레기를 교내에 함부로 버린다는 점입니다. 쉬는 시간이 지나면 복도와 계단 여기저기에 빵 봉지와 음료수 캔이 마구 떨어져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A]
학생2 매점에서 빵을 사먹고 배가 불러 점심밥을 많이 남기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는 국가적 낭비이자 개인의 건강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내 매점에서는 먹을 것을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3 매점을 이용하다가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시작된 후에 뒤늦게 들어오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끊겨서 방해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나온 매점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점심밥을 많이 남기는 것,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1 매점에서 구입한 음식은 매점 안이나 매점 주변에서만 먹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점 안이나 매점 주변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교내가 버려진 쓰레기로 더러워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2 하지만 학생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매점에서 먹을 것을 팔지 못하게 해서 빵 봉지 같은 쓰레기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고, 매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만 팔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1 그 의견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점에서 먹을 것을 안 판다면 누가 교내 매점을 이용하겠습니까? 매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 전에 스스로 간식 먹는 것을 자제하여 점심밥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예, 매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한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3 매점을 이용한 학생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학생회에서 캠페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잘 지키자는 내용의 포스터나 표어 등을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들을 매점 주변에 부착함으로써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할 때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학생회에 ㉠ 우리 반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위 토의의 '사회자'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토의에서 발언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② 토의의 발언 순서를 조정하여 공정성을 살리고 있다.
③ 토의할 문제와 토의 절차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토의 이후의 절차를 제시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⑤ 토의 의견에 대해 평가하며 토의 방향을 바로잡고 있다.

2. [A]의 '학생 2'에게 조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사나 주장을 말할 때 예의 바르게 표현해야 해.
② 토의 중에 발언 기회를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해.
③ 토의 절차를 숙지하고 그 절차를 지키며 말해야 해.
④ 다른 참여자가 발언할 때는 말을 가로막지 말아야 해.
⑤ 토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미리 생각해서 발언해야 해.

3.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학생들 스스로 점심시간 이전에는 매점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자.
② 매점에서 산 음식물은 매점 안이나 주변에서 먹고 교실에 들어가자.
③ 매점에서 음식물을 팔지 말고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만을 팔도록 하자.
④ 매점 이용 후에 생긴 쓰레기를 잘 버리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실시하자.
⑤ 매점 이용 때문에 수업에 늦지 말자는 내용의 표어, 포스터를 공모하자.

[4~7] (가)는 학생들이 발표 준비과정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의 발표문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발표 준비 과정

학생1 다음 주에 우리 조가 발표할 차례인데, 발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학생2 그래. 우리 소화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지?

학생3 응, 맞아. 그런데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깐 소화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더라. 그래서 모든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다 소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발표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말이야.

학생1 그럼 소화기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만 언급하자. 대신 우리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어때?

학생2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 발표 내용과 관련된 친구들의 경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청중의 관심을 끄는 게 좋겠어. ㉡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말이야.

학생 1 ㉢ 친구들의 배경지식을 점검해서 발표의 내용과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좋겠어. 그리고 ㉣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학생2 ㉤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할 때에는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건 어때?

학생3 알았어. 너희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 ⓐ 그런데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학생1 소화기에 대해서는 우리들 중에 네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준비한 자료도 충분하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학생2 그래. 소화기는 친구들도 흥미로워하는 소재이니까 우리 반 친구들도 네 발표를 잘 들어 줄 거야.

학생3 그래도 너무 불안한데.....

학생1 _____ⓑ_____

(나) 발표 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화재 사고를 기억하시죠? 학교 쓰레기장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학생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재빨리 불을 끈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지요. 만약 이 학생이 소화기의 사용법을 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은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소화기 사진을 준비한다.) 우선 여기에 있는 소화기를 봐 주세요. 소화기에는 이렇게 A, B, C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다.) 이것은 소화 가능한 화재의 종류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A는 일반 화재용으로 나무나 종이, 섬유 등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호입니다. 유류 화재용을 나타내는 B는 기름과 같은 가연성 액체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에 사용 가능한 것은 C로 표기합니다. 그럼 소화기처럼 A, B, C가 함께 표시되어 있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린다.) 모든 화재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화기는 소화재의 압축 방식에 따라서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아시나요? 얼마 전 화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소화기는 소화 약제 성분에 따라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분말 약제가 들어 있는 분말 소화기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도 바로 이 분말 소화기이므로, 오늘은 이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말 소화기의 사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사를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 중 소화기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20%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인터넷에 소화기 사용법이 사진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불이 나면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뺍니다. 소화기에서 안전핀을 뺄 때에는 손잡이를 잡으면 안전핀이 잘 빠지지 않으므로 소화기의 몸체를 잡고 빼야 합니다. 그런 다음 불이 난 곳을 향해 비로 쓸 듯이 분말을 뿌려 주어야 합니다. 분말 소화기는 산소의 공급을 막아 불을 끄는 방식이므로 불이 난 곳에 넓게 덮어씌우듯 뿌려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뿌려야 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소화기의 사용법을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학교는 어디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각 교실마다 2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복도에도 여러 대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니 평소에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말로 된 소화 약제가 굳어 버려서 정작 필요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화기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해 언제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화 약제가 굳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 좋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기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학생1과 학생2가 '발표 준비 과정'에서 제안한 내용 중, '학생3의 발표 초고'에 반영되지 <u>않은</u>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5. '발표 준비 과정'의 ⓐ와 관련하여 학생1이 ⓑ에서 학생3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니까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봐.

② 낯선 청중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니까 청중들의 성향을 미리 조사하여 청중들의 반응을 예상해 봐.

③ 청중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니까 청중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유머를 발표 중간에 사용해 봐.

④ 청중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니까 우리를 청중으로 생각하고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얻도록 해 봐.

⑤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니까 시간을 재매 연습을 해서 발표 분량을 미리 조절해 봐.

6. (나)를 통해 발표를 하였을 때 이를 들은 학생의 생각과 듣기 전략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학생의 생각	듣기 전략
①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 이번 기회에 소화기 사용법을 확실히 알아 두어야겠어.	발표 동기에 공감하며 들었다.
②	여러 매체 자료와 함께 실물까지 준비하느라고 자료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	발표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들었다.
③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국민이 생각보다 많은데, 발표자가 사용한 통계 자료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믿기가 어려워	발표자가 활용한 자료가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며 들었다.
④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소화기 사용법을 설명했는데, 사진보다 동영상 자료를 준비했다면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가 매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했는지 평가하며 들었다.
⑤	생각해 보니 그동안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었어. 소화기의 위치를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	발표자가 제안한 내용이 현실 상황에 효용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며 들었다.

7.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전에 떠올린 표현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겠어.
② 통계 수치를 인용할 때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발표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③ 청중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건을 언급하여 발표를 시작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야겠어.
④ 묻고 답하는 방식을 빈번하게 활용해야겠어.
⑤ 설명할 대상을 발표의 시작 부분에 제시하여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8. 다음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기>의 글쓰기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 대다수 학교에서 축제 참여자와 관객들이 다 함께 어울리는 행사가 아니라 소수 학생의 발표 위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음.
- 소수 학생이 중심이 되는 행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합창 공연, 학생과 부모님이 참여하는 공감 퀴즈 등의 행사를 마련하여 축제를 참여의 마당으로 만든 학교가 있음.
- 외국에서는 졸업생들이 자신의 축제 경험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UCC로 제작하여 축제 때 상영함으로써 학창 시절 축제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우도 있음.
- 학생들이 교사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글을 직접 작성하고 축제날 이를 전시함으로써 축제가 단순한 볼거리 위주의 행사가 아닌 의미 있는 교육 행사가 된 경우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음.

<보기>
- 주제: 참여와 감동의 축제를 만들자
- 예상 독자: 교사, 학생, 학부모
- 주요 내용

[문제점] :
↓
[방안] :
↓
[기대 효과] :

① 대다수 학생들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발표 위주 학교 축제'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자.
② 글의 주제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 행사 개발'을 '방안'으로 제시하자.
③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유명 연예인이 된 졸업생을 초빙하여 강연을 여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자.
④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행사 마련'을 방안으로 제시한 뒤, '축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를 '기대 효과로 제시하자.
⑤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는 구성원 간의 화합을 촉진하므로, '바람직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를 '기대 효과'로 제시하자.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주제: 학교에서 혹은 길을 가다가 갑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 작문 구상: 대부분의 친구들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날 경우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거나 그 장소를 벗어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도와주고는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나머지 그냥 지켜보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위기에 처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값진 정보가 될 것이다.
• 작문의 실제

㉠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일단 딱딱하고 편평한 바닥에 눕힌다.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이때 주의할 것은 심하게 몸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쓰러진 사람이 반응이 없다면 주위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이때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으면 다들 서로 미루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을 지정해서 말해야 한다.

그런 다음 기도 유지 및 호흡을 확인한다. <ⓐ> 한 손으로 이마 부분을 눌러 기울이고 다른 손으로 턱의 뼈 부분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호흡음이 있는지 듣고 공기의 흐름이 있는지 느끼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 만약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판단되면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를 밀고 있는 손의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으로 <㉢> 완전히 덮은 다음 1초 동안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2회 공기를 불어 넣는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기도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인공호흡을 하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도 유지를 하고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 흉부 압박을 시작한다.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쪽 손바닥의 두툼한 아랫부분을 놓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한다. 아래쪽 손의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팔꿈치를 펴고 팔을 바닥에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한다. 분당 100회 속도로 약 4~5cm 깊이로 압박하며 압박과 이완 시간은 같은 정도로 하고 각각의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숫자를 하나, 둘, 셋 ~ 서른까지 세어 가면서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 수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흉부 압박 시 중단 시간이 10초 미만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9. '작문 주제'나 '작문 구상'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① 독자를 고려하여 비유와 유추의 방식을 사용한다.
② 글의 목적에 맞도록 인과적인 구성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한다.
③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해결 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④ 문제 상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한다.
⑤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비교와 분석의 방식을 통해 제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라는 말을 추가하여, 글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다.
② ㉡은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로 위치를 옮긴다.
③ ㉢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환자의 입을'을 삽입한다.
④ ㉣은 '압박'이라는 앞 말을 고려하여 '이완'이라는 말로 바꾼다.
⑤ ㉤은 앞뒤 내용이 나란히 연결되므로 '그리고'로 바꾼다.

11. <보기>의 설명을 참조할 때, '주변적 의미'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때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중심적(일차적) 의미라고 하고, 그 의미 범주를 확장하여 중심적 의미를 제외한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이를 주변적(이차적) 의미라고 한다.
<예>
* 밥을 먹다 → 중심적 의미
* 일등을 먹다, 겁을 먹다, 나이를 먹다 → 주변적 의미

① 섣부른 생각으로 결과를 예단(豫斷)하지 마십시오.
②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糧食)을 실컷 섭취하십시오.
③ 정의는 민주주의 발전의 이정표(里程標)가 될 것입니다.
④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한 처방(處方)이 필요합니다.
⑤ 여러분은 게으름이라는 고질병(痼疾病)에 걸려 있습니다.

12. <보기>는 우리말의 '-와/과'에 대한 탐구 자료이다. 이를 참조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 '-와/과'
1. 접속 조사로 쓰일 때: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기능으로 생략이 가능함 …a
2. 부사격 조사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쓰임
--대상 간 비교를 함 …b
--대상과 함께하는 행동을 나타냄 …c
--상대가 되는 대상을 나타냄 …d
ㄱ 민수와 형수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ㄴ 이번 영화는 원작과 달라서 친구와 같이 재미있게 보았다.
ㄷ 어제 철수와 헤어지면서 오늘 영희와 진형이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① ㄱ의 '와'는 a와 연관된 용례로서, 생략하게 되면 쉼표를 넣어 주어야겠군.
② ㄱ은 민수, 형수가 따로 공부했다는 의미 외에도, '와'를 c의 용례로 보면 민수와 형수가 함께 공부했다는 의미도 나타내는군.
③ ㄴ의 '원작과'의 '과'는 b와 관련된 것으로 ㄱ의 '민수와'와는 달

리 반드시 주어가 필요하군.
④ ㄴ의 '친구와'의 '와'는 c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는 행동을 함께함을 나타내고 있군.
⑤ ㄷ의 '철수와'의 '와'는 d와 관련된 것으로 '영희와'의 '와'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군.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서술어를 비롯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주성분이 있고, 이외에 관형어와 부사어와 같은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어와 같은 독립 성분도 있다. 이들 중 문장 구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주성분이다. 특히 서술어가 다른 주성분들의 출현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서,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와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센) 바람이 불었다.
영희는 (인형처럼) 예뻤다.
이것이 (내가 말한) (그) 책이다.

위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불다', '예쁘다', '책이다'는 각각 '바람이', '영희는', '이것이'라는 주어를 필요로 한다. 만약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결국 주어가 서술어에 호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괄호 속에 든 '거센', '내가 말한', '그'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일 뿐이며, '인형처럼'은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일 뿐이다.

덕재가 밥을 먹었다.
얼음이 물이 됐다.

위에서 '먹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덕재가'와 목적어 '밥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되다'는 주어 '얼음이'와 보어 '물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를 반드시 요구한다 해서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그런데 '얼음이 물로 됐다.'에서와 같이 두 자리 서술어 '되다'는 보어가 아닌 필수적 부사어 '물로'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물로'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철수와 싸웠다'도 마찬가지다. '싸우다'는 '나는'이라는 주어와 '철수와'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동반해야만 한다. 따라서 서술어 자릿수를 논할 때 부사어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 부사어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철수가 먹이를 개에게 주었다.
아빠는 할머님께 용돈을 드렸다.
그는 성훈이를 양자로 삼았다.

서술어 중에는 ㉠ 필수적 문장 성분을 세 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도 있다. 위에서 '주다'는 주어 '철수가', 목적어 '먹이를', 필수적 부사어 '개에게'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고, '드리다'도 주어 '아빠는', 목적어 '용돈을', 필수적 부사어 '할머님께'를 요구하고 있다. '삼다'도 주어 '그는', 목적어 '성훈이를', 필수적 부사어 '양자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서술어 '주다', '드리다', '삼다'와 호응하고 있음을 뜻한다.
결국 문장에서 서술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장 성분과 호응' 문제에서 서술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모두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13. <보기>의 두 사례를 통해 위 글을 보완할 때, 덧붙여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 [아이들이 즐겁게 논다. / 아이들이 윷을 논다.]
B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인다. / 바람이 바위를 움직인다.]

① 특정한 서술어는 특정한 종류의 체언을 요구한다.
② 특정한 서술어는 특정한 자릿수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③ 특정 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경우에는 부사어가 필요하다.
④ 서술어가 같더라도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진다.
⑤ 같은 의미의 서술어라 하더라도 자릿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14.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②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③ 그는 영희를 애인으로 여긴다.
④ 우리는 그를 형이라고 불렀다.
⑤ 그는 부엌칼을 흉기로 간주했다.

15. <보기>의 설명과 관련하여 용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보기>
음운이 줄어드는 현상에는 음운 축약과 음운 탈락이 있다. 두 개의 음운이 만났을 때, 그중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이 살아 있는 채로 합류하여 제3의 음운이 되는 경우를 음운 축약이라고 한다. 음운 축약은 다시 모음 축약과 자음 축약으로 나뉜다. 그리고 두 개의 음운이 이어질 때, 어느 한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를 음운 탈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음절 탈락이 있다.

① 자네의 말이나 내 말이나 결국은 그게 그거야.
② 올해는 연초부터 생각지 않던 행운이 거듭되었다.
③ 친구는 자꾸 긴치 않은 말을 걸어 나를 귀찮게 했다.
④ 하루하루 모은 용돈이 어느덧 등록금을 낼 정도가 됐다.
⑤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서슴지 말고 이의를 제기해라.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억'은 과거를 상기하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으로, 기억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바슈는 기억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고 '기억의 사회적 틀'을 지적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기억도 사회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알바슈를 좇아 기억을 집단기억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기억의 속성은 쉽게 드러난다. 우선 기억은 과거보다는 현재 지향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밀랍 판의 압인처럼 고정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기억의 현재 지향성에 따라 기억은 역사를 가지게 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기억은 시점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역사가 노라가 주목하는 '기억의 장'은 기억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동일한 과거에 대해 일관된 하나의 기억이 아니라 다양하고 상이한 복수의 기억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현재 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현재의 토양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기억이기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기억은 걸러져서 어떤 것은 계속 존속하고, 어떤 것은 억압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기억이 선택되는 것은 그것이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개인적 기억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의미를 가질 때만이 집단기억으로 정착할 수 있다.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즉 기억할 만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인 것이다. 집단이 없으면 기억도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이 해체되면 기억도 ⓐ 상실된다.

기억에 대한 집단의 관심과 태도는 집단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다. 집단은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동의 기억을 통해 일체감을 확인하고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기억이 상이함을 억압하고 유사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집단적 연속성과 응집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집단이 기억을 만들듯, 기억이 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 정체성에 의해 구조화되는 기억은 당파적일 수밖에 없다. 집단 정체성의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기억은 사회의 권력 구조에서 비롯되는 집단의 당파성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기억은 사회적 권력 관계에 종속되고 집단의 이익과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억을 둘러싼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은 집단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억의 기능이 당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의 내용까지 결정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기억이 집단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역사의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집단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홀로코스트(1)에 대한 미국 사회의 집단기억을 분석한 미국의 역사가 ㉠ 노빅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노빅은 미국 사회에서 홀로코스트 기억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유대인 대학살의 기억이 유대교를 대신하여 미국 사회 내 유대인들의 종족적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과정을 밝혀낸다. 노빅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비극의 역사적 무대가 아닌 미국에서 1970 년대 이후 유대인뿐 아니라 미국 시민 전체의 기억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기억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일종의 시민 종교로 기능하는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노빅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기억이란, 과거의 체험이 실재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성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같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집단기억에 대해 노빅은 매우 비판적이다. 기억이 역사의 맥락을 벗어나 신화와 종교의 차원에서 절대화되면서 역사적 현상을 이해 불가능한 초역사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1) 홀로코스트(Holocaust):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죽이거나 대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대략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을 뜻한다.

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기억은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적용받게 된다.
② 동일한 과거에 대해 상이한 기억이 존재할 수 있다.
③ 역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실되는 기억 때문에 존재한다.
④ 알바슈는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⑤ 알바슈에 따르면 기억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향적인 것이다.

17. <보기>의 사례로 위 글을 보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보기>

우리 역사에서 일제 식민지배 경험에 대한 기억 중 군위안부 문제의 경우, 1990 년대 이전까지는 개인적 기억 차원에 머물러 왔었다. 하지만 이후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서술되면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기억으로 각인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식민지배가 야기한, 그리고 전쟁 상황이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결속력으로 작용하였다.

① 개인 기억이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역사 서술의 현재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② 개인 기억이 집단기억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순수한 의미의 개인 기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
③ 기억과 역사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기억과 역사를 구분하려는 경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집단기억의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의 사례로 제시됨으로써, 집단기억이 사회 구성원에게 주는 영향력의 양면성을 동시에 소개할 수 있다.
⑤ 집단기억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역사의 기능을 지적함으로써, 살아 있는 기억을 불식시켜 과거를 지배하려고 하는 역사의 부정적 기능을 드러낼 수 있다.

18. <보기>는 '핀켈슈타인'이 쓴 「홀로코스트 산업」에 대한 내용이다. 위 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핀켈슈타인'은 그의 저서에서 홀로코스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세력의 부정의성을 폭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각종 유대인 보호 단체와 협약을 맺어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돈은 학살 희생자가 아닌 유대인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즉,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담보로 하여 물질적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은, 미국 내 있었던 일부 유대인 엘리트들이었음을 핀켈슈타인은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일부 유대인 엘리트들이 홀로코스트 학살의 당사자 여부를 떠나 그 고통을 유대민족 전체의 것으로 계승시키려 했던 '세습적 희생자 의식'에는 과거의 기억을 유대인들만의 특수한 것으로 만드는 '기억의 신성화' 논리가 숨어 있다고 본 것이다. 나치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사실이 홀로코스트 산업으로 변모하게 된 원인의 근저에는 기억을 구체화하여 이데올로기로 변형시킨 권력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① ㉠과 ㉡ 모두 집단기억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군.
② ㉠과 ㉡ 모두 홀로코스트에 대해 집단기억이 갖는 사회적 맥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군.
③ ㉠은 ㉡과 달리 집단기억이 집단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군.
④ ㉠과 달리 ㉡은 물질적 이득 추구에 집단기억이 이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군.
⑤ ㉠에 비해 ㉡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집단기억 주체의 범위를 좁혀서 이해하고 있군.

19. 밑줄 친 단어 중, ⓐ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① 찬 기운이 뼛속에까지 잦으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② 나이를 먹으니 옛 기억이 차츰 어스러져 감을 느낀다.
③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들이 풀어져 분위기가 좋아졌다.
④ 화가 났지만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⑤ 나를 달려오게 한 열정이 빠르게 식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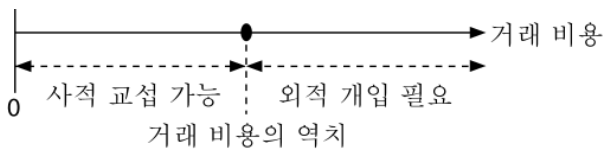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목장의 소가 인근 옥수수 밭의 농작물을 훼손하여 목장 주인과 농부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울타리를 목장 주변에 쳐야 할까 아니면 옥수수 밭 주변에 쳐야 할까?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또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사자들 간의 적절한 타협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정부 당국의 강제적 ⓐ 개입이 필요할까?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학의 이론들은 이들 법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교섭 이론을 들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거래 당사자끼리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적 잉여'를 ⓑ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교섭은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경제학에서 '외부성'이란 의도성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흡연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과수원이 주변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즈 교수는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총칭하는 의미로 '거래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섭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즈 교수는 거래 비용이 0인 경우, 법에 의지하여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거래 비용은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가지며, 거래 비용의 수준에 따라 교섭이 가능한지 혹은 교섭이 어려워 다른 대체적 수단이 필요한지가 결정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 비용의 범위를 교섭 영역과 비교섭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거래 비용의 역치가 존재한다. 여기서 '거래 비용의 역치'란 교섭이 가능한 거래 비용의 최대치로, 이 역치보다 거래 비용이 적으면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과 같은 강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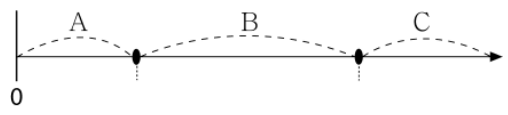
그리고 이 역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 역치를 갖는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도 교섭이 성공할 것으로 믿을 것이다. 반면 낮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 역치를 갖는 사람은 보다 낮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그는 보다 많은 상황에서 법의 개입을 ⓒ 선호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학의 원리는 법이나 정책의 방향을 ⓓ 설정하고 법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률가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사적 교섭을 ⓔ 저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구성한다.'라는 '규범적 코즈의 정리'나 '사적 합의의 실패에 의한 손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구성한다.'라는 '규범적 홉스의 정리'는 법률가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경제학의 원리는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
② 사람에 따라 거래 비용의 역치는 다를 수 있다.
③ 거래 비용은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④ 외적 개입이 없다면 거래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⑤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거래 쌍방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21.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외적 개입 여부'에 대해 '갑'과 '을'이 동일한 의견을 보일 구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갑'의 거래 비용 역치 '을'의 거래 비용 역치

① A ② B ③ C
④ A, C ⑤ B, C

22. <보기>는 ㉠의 문제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소들의 침입에 의한 농부의 연간 손해는 20만 원이다.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연간 비용은 16만 원이다. 옥수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연간 비용은 10만 원이다. 이 지역은 이러한 분쟁에 대해 방목제한제(농부의 권리)를 채택했기 때문에, 목장주가 자신의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해야 한다. 이에 목장주는 농부에게 옥수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해 주면 그 차액으로 인한 이익 6만 원의 1/2인 3만 원과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비용 10만 원을 합해 농부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이 교섭에 드는 거래 비용은 1만 원이었으므로 이 교섭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① '협력적 잉여'보다 거래 비용이 더 컸다면 교섭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군.
② 법적인 해결보다 교섭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이 지역에서 채택한 방목제한제는 '규범적 홉스의 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
④ 농부나 목장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⑤ '규범적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방목제한제'는 목장주가 교섭보다는 법적 강제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겠군.

23. ⓐ ~ ⓔ를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해 보았다.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국제기구는 국가 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② ⓑ : 개인들의 노력이 합쳐지면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다.
③ ⓒ : 기름 값이 오르면서 소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④ ⓓ : 여러 회사 중 우리 회사가 수도권 지역 사업자로 설정되었다.
⑤ ⓔ : 이기적인 욕망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이러스는 살아 있는 생명체에 기생해서 산다.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까지도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이다. 바이러스의 이러한 성질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해로운 미생물을 없애는 수단으로 바이러스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바이러스를 세균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특별히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뜻에서 '박테리오파지'라 부른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 안에서 스스로 증식하면서 살아가므로 숙주가 되는 세균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박테리오파지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한 데렐은 이러한 파지의 이용 가능성을 궁리하던 끝에, 장내에 기생하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질균을 대상으로 파지의 효용성을 실험해 보았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실험실에서는 증식시킨 세균의 배양액에 파지를 접종하면 분명히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환자들에게는 같은 박테리오파지를 한 컵이나 들이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들이 여전히 살아남았다.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는 몸 안으로 들어간 박테리오파지가 제 기능을 시작하기도 전에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꼽혔다. 간장과 비장 그리고 골수 등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식세포나 백혈구에 의해 급속히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지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파괴되면서 배출한 독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치료 방법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해로운 세균을 죽이기 위해 박테리오파지를 직접 투여하는 치료 방법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 박테리오파지의 정제 기술이 크게 발전한 후, 그 동안 박테리오파지의 이용 가능성을 눈여겨보던 영국의 학자들이 1980년대에 다시 실험에 도전하였다. 오래 전부터 병원성 세균에 의한 동물 질병은 대체로 항생제를 이용하여 해결해 왔지만, 세균은 점차 그에 대한 내성을 갖추면서 항생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성 세균을 직접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박테리오파지의 이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학자들은 병원성 대장균을 파괴할 수 있는 몇 종류의 박테리오파지를 자연 환경에서 가려낸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세균을 파괴하는 능력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병원성 대장균 균주를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찾아냈고, 같은 병원성 균주로 고통 받는 생쥐에게 주입했더니 분명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더욱이 이 치료의 효과는 몇 가지 항생제를 처리한 경우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계속해서 이루어진 실험에서 박테

리오파지에 내성을 보이는 대장균 변이종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행인 것은 이들 변이종의 병원성은 부모 세균의 병원성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항생물질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변이종은 원래의 세균과 비슷하거나 그보다도 더 강한 병원성을 나타내기 마련인데, 파지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병원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실험 결과였다. 파지를 이용한 병원성 대장균의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뒤이어 송아지와 새끼 돼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항생물질 등을 이용하던 이제까지의 일반화된 치료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임을 증명하였다.

2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박테리오파지'라는 명칭은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② 데렐은 최초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질병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③ 데렐의 실험이 실패한 원인은 박테리오파지를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④ 세균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⑤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세균들의 출현으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치료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5. 위 글을 참조해 <보기>의 '용원성 파지의 이용 방법'이 지닌 핵심 내용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3점]

<보기>

다양한 박테리오파지들 가운데 DNA파지는 세균의 세포 안에 들어간 후에 '증식형 파지' 혹은 '용원성 파지'가 된다. 이 중 용원성 파지는 숙주 세포의 염색체와 안정된 결합을 해 세포 분열 전에 숙주 세포 염색체와 함께 복제되어 세균이 분열할 때마다 새로 생겨난 세균의 DNA의 일부로 포함된 채 살아간다. 용원성 파지가 지니는 이러한 특별한 성질을 활용하여, 세균에 특수한 유전자를 넣어 주는 운반체로 파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① 용원성 파지를 통해 특정 DNA를 주입함으로써, 병원성 세균을 비병원성 세균으로 바꾼다.
② 용원성 파지를 이용하여 세균이 분열할 때마다 독성이 강해지게 하여, 세균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든다.
③ 용원성 파지를 만들어 세균의 DNA에 주입함으로써 그 세균이 분열하는 기능을 제거하거나 억제한다.
④ 용원성 파지가 세균의 DNA에 침투하여 그 DNA를 대체함으로써 세균이 지닌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⑤ 용원성 파지를 이용하여, 필요한 유전자를 세균의 세포로부터 분리하여 연구의 재료로 삼을 수 있게 한다.

26.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체내에서 대식세포와 쉽게 결합하도록 조제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세균이 배출하는 독소 성분이 섞이지 않게 조제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다양한 세균에 대해, 그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④ 여러 종류의 세균을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조제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숙주 세포 없이도 생존과 증식이 가능한 바이러스를 조제할 수 있게 되었다.

27.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치료법'이 지닌 효율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발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만을 선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② 발병 부위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③ 세균을 숙주로 하므로 그 세균이 없어질 때까지 공격이 계속 진행된다.
④ 스스로 증식하기 때문에 적은 양만 넣어 주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⑤ 박테리오파지에 내성을 지닌 변이종 세균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텔이나 큰 빌딩에 가면 직접 손으로 문을 열지 않아도 다가가면 저절로 열리고, 통과하면 저절로 닫히는 문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동문'이라고 부른다. ㉠ 자동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자동문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자동문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몸무게'에 의한 방법이고, 둘째는 '전자'에 의한 방법이며, 셋째는 '도어 엔진'에 의한 방법이다.

첫째, '몸무게'를 이용한 자동문은 현재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방법은 사람이 문 앞의 발판을 밟고 서면 열리는 방식이다. 즉, 사람의 몸무게가 발판 밑에 있는 스위치를 작동시켜 모터를 움직이게 하거나 서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전자'를 이용한 자동문은 문의 위쪽에다 광전관을 장치한 것으로, 문에 사람이 접근하면 광전관 속으로 들어가는 빛을 가로

막게 되고, 빛이 막히면 모터 회로가 작동해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게 하는 방식이다. '전자'를 이용한 자동문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광센서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빛의 양이 변화하는 것을 민감하게 감지해 낸다. 센서는 힘, 빛, 열, 진동, 전자기 등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 주는 장치로서, 전자 부품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직접 대상에 접촉하거나 그 가까이에서 데이터를 알아내어 필요한 정보를 나중에 처리하기 편리한 신호로 바꿔서 전달한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 의해 빛이 차단되면 광센서가 느낄 수 있는 빛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광센서가 이를 감지하게 된다. 이것은 빛이 직진하여 물체를 투과하거나 물체에 부딪쳐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참고로 센서는 지진계, 음주 측정기, 연기 탐지기, 수중 음파 탐지기, 동전 검사기, 금속 탐지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셋째, '도어 엔진'을 이용한 자동문은 우리가 흔히 보는 지하철 전동차의 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하철 전동차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지만, 이것은 차장실(운전실)에 있는 스위치를 움직임으로써 각 문에 장치되어 있는 엔진을 작동시켜 문을 여닫는 방식이다. 자동문의 도어 엔진은 문을 자동으로 개폐시켜 주는 장치인데,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느냐에 따라 공압식, 유압식, 전동식으로 나눠진다. 특히 유압식은 크거나 무거운 문을 열고 닫는 데에 사용된다. 도어 엔진의 핵심은 공기 압력 실린더이다. 문을 움직이는 실린더와 링크 기구는 보통 문 위쪽에 내장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도어 엔진의 공기 압력을 빼 버리면 문을 손으로 열 수 있도록 비상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28. 위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의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전동차의 자동문에서 도어 엔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② 센서가 이용되는 기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③ '전자'를 이용한 자동문을 작동하게 하는 핵심 장치는 무엇인가?
④ 유압식 도어 엔진이 문을 여는 데 필용한 최소한의 압력은 얼마인가?
⑤ '몸무게'를 이용한 자동문과 '전자'를 이용한 자동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29. ㉠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몸무게에 의한 방법 * 몸무게가 발판 밑의 스위치를 작동시켜 모터를 움직여 문을 자동으로 열리게 함. ……① 전자(센서)에 의한 방법 * 문에 사람이 접근하면 광전관 속으로 들어가는 빛을 가로막게 됨. ……② * 빛이 막히면 회로가 작동해서 모터를 움직여 문을 자동으로 열리게 함. ……③ 도어 엔진에 의한 방법 * 차장실에 있는 스위치를 움직여 도어 엔진을 작동시켜 문을 자동으로 열리게 함. ……④ * 도어 엔진의 압력을 뺌으로써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함. …⑤

30. <보기>와 위 글을 함께 읽은 후에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보기>
자동문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앞사람이 지나간 후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뒷사람이 문을 통과하던 중 문이 닫히면서 신체의 일부가 문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 문틀과 자동문 사이, 자동문과 바닥 사이에 상당한 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틈 사이에 손이나 발이 끼어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① 자동문의 자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군.
② 자동문 연구 및 제조 기술을 특화시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국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군.
③ 자동문의 원리를 다른 기계나 기구들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군.
④ 자동문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보상 및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군.
⑤ 자동문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종 보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군.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조카 친이 집을 짓고 통곡헌이라는 편액을 달았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세상에는 즐거워할 만한 일이 너무도 많은데, 어째서 통곡으로 집의 편액을 달았는가? 하물며 통곡이란 것은 상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부인네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 소리 듣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유독 그대는 사람들이 꺼리는 것을 어기면서 거처하는 곳에 걸어 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친이 말하였다.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을 저버리고 ㉠ 시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기는 자입니다. 이 시절이 기쁜 것을 즐기기 때문에 저는 슬픔을 좋아하고, 시속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저도 또한 슬퍼하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달을 좋아하는 것에 이르면 저는 더러운 것처럼 그것을 버립니다. 오직 천하고 가난하고 곤궁하고 검약한 것을 보고 거기에 처하면 반드시 하는 일마다 그것을 어기려고 합니다. 항상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 통곡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집에 이것을 가지고 현판을 달았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무릇 통곡에도 또한 도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의 칠정 중에 움직여 감발하기 쉬운 것으로 슬픔만한 것이 없지요. 슬픔이 지극하면 반드시 통곡하게 되는데 슬픔이 이는 것도 또한 많은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일을 할 수 없어서 상심한 탓에 통곡을 한 사람은 가태부(가의)이고 흰색 실이 그 본바탕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한 사람은 묵적입니다. 갈림길이 동서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한 사람은 양주이며, 막다른 길에서 통곡을 한 사람은 완보병(완적)입니다. 시대와 운명을 만나지 못한 것을 슬퍼하여 스스로 인간 세상 밖에 자신을 놓아두고 통곡에 심정을 의탁한 사람은 당구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가슴에 품은 것이 있어서 통곡을 한 것이지, 이별을 가슴 아파하고 위축된 마음을 품어 자질구레하게도 아녀자의 통곡을 본받은 것은 아니었지요.

지금 시절을 이런 분들의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더더욱 볼 것이 없습니다. 나라 일은 날로 잘못되어 가고 있고 선비들의 행실은 날로 경박해져 갑니다. 친구들이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갈림길의 나뉘어진 것보다 더 심하며, 어진 선비의 곤액은 막다른 길에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모두 인간 세상 밖으로 은거하려는 계책을 가지고 있으니, 만약 여러 군자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를 직접 보시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차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팽함이나 굴원처럼 돌과 모래를 끌어안고 싶어할 것입니다. 친이 집의 편액을 통곡이라고 한 것은 역시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통곡이라는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것이 옳을 겁니다."

비웃던 자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물러가자, 이로 인하여 글을 써서 뭇 의심을 풀어 주는 바이다.

허균, '통곡헌기'

(나) 상시런가 꿈이런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 군선이 꺼리나다
두어라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올탓다 //
풋잠에 꿈을 꾸어 십이루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군선이 꾸짖는다
어즈버 백만억 창생을 어느 결에 무르리 //
하늘이 무너진 때 무슨 수로 기워낸고
백옥루 중사할 때 어떤 장인 일워낸고
옥황께 사뢰고자 하더니 다 못하여 오나다

윤선도, '몽천요'

(다) 어지러운 세상 부대끼면서 흰 머리가 되기까지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 이루지 못했도다
오늘날 참으로 어찌할 수 없고 보니
ⓐ 가물거리는 촛불만 푸른 하늘을 비추네

요망한 기운이 가려서 임금 볕이 옮겨지니
ⓑ 구중궁궐은 침침하여 햇살이 더디 드네
이제부터 조칙을 받을 길이 없으니
구슬 같은 눈물이 종이 가닥을 적시네

ⓒ 새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 또한 찡그리네
ⓓ 무궁화 이 나라가 이젠 망해 버렸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을 되새기니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 일찍이 나라를 버티는 일에 조그마한 공도 없더니
단지 인을 이룰 뿐이요, 충을 이루진 못했어라
겨우 능히 유곡을 따르는 데 그칠 뿐이요
진동을 넘지 못했음이 부끄럽기만 하더라

황현, '절명시'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내적 고뇌가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② 부정적 상황을 견뎌내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③ 자연을 통한 인간 삶의 성찰과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④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이원적 구조가 나타나 있다.
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32. (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기>
ㄱ 문답 방식으로 일의 내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ㄴ 근거가 되는 사례를 들어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ㄷ 대비적인 공간을 병치하여 현실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ㄹ 여러 인물의 시각을 통해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밝히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고산 윤선도의 일생은 입신, 배척, 유배, 은거의 과정을 반복하는 삶이었다. 언제나 입신만 하면 주위의 질시의 대상이 되어 배척되고, 그 결과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된 데에는 고산의 이상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경세제민에 있었기 때문이다. 윤선도의 작품 공간은 '현실-자연-천계'로 나타난다. 현실은 경세제민의 이상을 펼치고자 하지만 그것의 실현이 가로 막힌 공간이다. 그로 인해 자연 공간을 선택하게 되고, 현실 정치 세계와 비교하여 자연 공간의 가치가 더 우위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려는 작업이 계속된다. 천계는 일반적으로 현실에서의 좌절과 고통을 보상해 주는 이상 세계이다. 그러나 윤선도의 작품에서는 공간만 이동했을 뿐이지 현실을 그대로 옮겨 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가 현실에서 품었던 이상이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비참함, 결핍감만을 더욱 강조해 줄 뿐이다. 천계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한 윤선도는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온다.

① '백옥경', '십이루', '옥황'과 같은 시어를 통해 작품의 공간이 천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두어라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올탓다'를 통해 작가가 자연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어즈버 백만억 창생을 어느 결에 무르리'를 통해 작가가 품었던 이상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다 못하여 오나다'를 통해 이상이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결핍감이 드러나고 있다.
⑤ '하늘이 무너진 때 무슨 수로 기워낸고'에서 윤선도가 펼치고자 했던 경세제민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다.

34.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난리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화자의 착잡한 모습을 나타낸다.
② ⓑ : 어지러운 세상에서 몰락해 가는 역사를 상징한다.
③ ⓒ :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애통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④ ⓓ : 세상의 변화에서 화자가 느끼는 혼란이 드러나 있다.
⑤ ⓔ :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자책이 나타나 있다.

3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 모두 현재에 매몰되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② ㉠과 ㉡ 모두 세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③ ㉠과 ㉡ 모두 관습적 사고와 행동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④ ㉠은 세태를 대변하는 자들이며, ㉡은 화자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다.
⑤ ㉠은 세상의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은 현실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우리 가족은 고향을 떠나 도시 변두리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는 노새로 연탄 배달을 한다. 그런데 평소 거뜬하게 올라가던 언덕에서 노새가 갑자기 멈춰 선다.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 않는다. 그때 마차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마차와 노새가 나자빠진다. 마차가 넘어지자 노새는 달아나 버리고,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나선다.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곳을 가나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 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중략)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폿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고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으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힝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

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노새 가족은 우리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우.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를 찾았대?"

"찾고나 그러면 괜찮게요--노새는 간데온데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스적스적 문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최일남, '노새 두 마리'

3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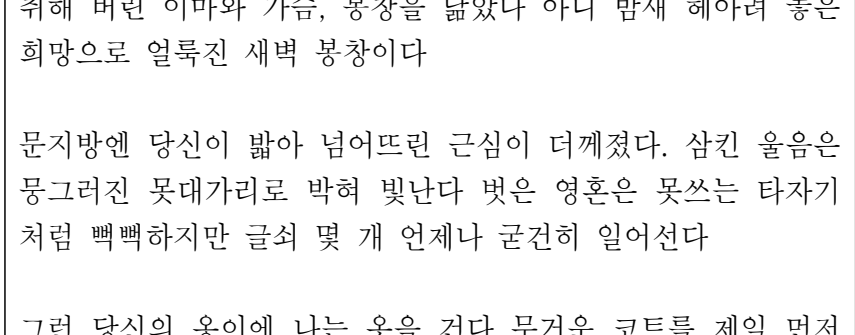
<보기>

ㄱ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ㄴ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ㄷ 특정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ㄹ 사건을 체험한 주체가 여러 각도에서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심리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 ㉮: 아버지와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단절감을 느낀다.
② ㉯: 노새와 닮은 아버지의 초라한 형상을 보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③ ㉰: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던 노새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달래고 있다.
④ ㉱: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지른 노새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망연자실해 한다.
⑤ ㉯: 시대에 뒤진 우리 가족이 도시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38.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시가 떠올랐다고 할 때, 그 연상의 고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밤새워 소주를 마셔도 당신은 젖지 않는다 이미 세상의 빗물에 취해 버린 이마와 가슴, 봉창을 닮았다 아니 밤새 헤아려 놓은 희망으로 얼룩진 새벽 봉창이다

문지방엔 당신이 밟아 넘어뜨린 근심이 더께졌다. 삼킨 울음은 뭉그러진 못대가리로 박혀 빛난다 벗은 영혼은 못쓰는 타자기처럼 빽빽하지만 글쇠 몇 개 언제나 굳건히 일어선다

그런 당신의 옹이에 나는 옷을 건다 무거운 코트를 제일 먼저 건다

진통제처럼 떠 있는 새벽달을 먹고 당신은 기침을 쏟는다 기침마다 헐은 아침이 묻어나온다 헌 구두짝에 담긴 하루를 신고 당신이 걷는 길은 손등에서 쇳빛 혈관으로 툭툭 불거지는데

당신의 방 앞에서 매일 꽃피는 붉은 엉겅퀴

김수우, '엉겅퀴꽃 아버지'

① 고달프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② 아버지의 이미지와 연계되는 다른 대상이 등장하고 있는 점
③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잔잔하게 형상화되어 있는 점
④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점
⑤ 아버지와 화자가 서로 정서를 공유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점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진희와 이혈룡은 함께 공부하면서 출세하면 서로 돕기로 맹세했다. 그 후 김진희는 과거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된 반면 이혈룡은 곤궁한 처지가 되었다. 혈룡은 진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진희는 혈룡을 반가워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한다. 이때 관기인 옥단춘이 혈룡의 비범함을 보고 뱃사공들을 매수하여 구출하고, 혈룡의 본가에도 경제적으로 원조하여 혈룡이 과거를 치르게 한다. 암행어사가 된 혈룡은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가고 옥단춘은 변함없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역졸들과 약속한 시각이 다가오자 이혈룡은 그 남루한 행색으로 성큼성큼 연광정 대상으로 올라가니,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와서 혈룡을 잡아서 층계 밑에 꿇려 놓으니, 김 감사가 대상에서 호통을 치니라.

"너 이놈 이혈룡이로구나.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 보라!"

"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희야, 들어 보라.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도 못하고 근근이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네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의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 내 물귀신 될 원혼이 오늘 또다시 네가 연광정에서 호유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혈룡의 귀신이 원수를 갚으러 왔다는 위협에 김 감사도 등골이 섬뜩하여 좌우 비장을 노려보며 어떻게 하랴 하고 물으니, 비장이,

"아무래도 참말 같지 않사옵니다. 죽은 원혼이 어찌 사람 모습이 되어 올 수 있습니까? 그때 데리고 갔던 사공을 불러다가 문초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사공을 빨리 잡아들이라는 영을 내리니, 나졸들이 청령하고 나가서 잡아가면서 어르기를,

"야단났다, 야단났다. 너희들 사공 놈들 야단났다. 어서 빨리 들어가자."

하고, 사공들의 덜미를 잡고 연광정 밑으로 가니,

"사공 놈을 잡아왔소."

나졸들의 복명하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니라.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연회장의 옥단춘은 사공이 매에 못 이기고 사실대로 불면 자기도 죄를 당할 것이고, 그보다 귀신 아닌 자기의 서방님이 능지처참될 것을 생각하고 전신이 벌벌 떨렸으니, 김 감사는 형방을 불러서 형구를 차려 놓고,

"그놈을 능지가 되도록 때려서 문초하라."

추상같은 엄명을 내리매, 형방조차 겁을 내고 뱃사공들을 치면서 얼러 대기를,

"이놈들 들어 보라. 저번에 너희들은 저기 저 양반을 영대로 물에 던져 죽였느냐? 바른대로 고하라!"

사공들은 악착같은 악형에 못 이기고 여차여차하였다고 사실대로 토설하고 말았으니, 김 감사는 다른 형방에게,

"저 이혈룡은 목을 베어 죽여도 죄가 남을 놈인데, 아까 형방놈은 내 앞에서 저놈을 양반이라고 불러서 존대하였으니, 그 형방놈도 혈룡 놈과 죄가 같다!"

하고, 먼저 형방을 잡아 꿇리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책상을 치면서 호통치기를,

"전부터 내 수청도 거역한 요망스러운 기생년 옥단춘을 잡아내라!"

좌우 나졸이 일시에 달려들어 소복 단장한 채로 분결 같은 손목을 덥석 잡아서 끌어내리매, 연광정이 뒤집힐 듯이 살벌한 형장으로 일변하였으니, 평생에 이런 봉변을 만나 보지 않다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자 수족을 벌벌 떨면서 이혈룡을 돌아보고,

"여보시오, 이것이 웬일이오? 내가 그처럼 집을 보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였는데 정말로 귀신이 되려고 여기 왔소? 무슨 살매가 들려서 죽을 곳을 찾아왔소? 내 집의 재물만으로도 호의호식 지낼 텐데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이오? 애고애고 우리 낭군 어찌하면 살 수 있소? 요전번에 죽을 목숨 살려 백년해로 언약하고 즐겁게 살려 하였더니, 일 년이 못 되어 이런 죽음 웬일이오? 애고애고 우리 낭군 야속하고 원통하오.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마는, 낭군님은 대장부로 생겨나서 공명 한번 못 해보고 억울하게 황천객이 되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오. 아아, 낭군 팔자나 내 팔자나 전생의 무슨 죄로 이다지도 험악하단 말인가? 사주팔자가 이럴진대 누구를 원망하겠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우리이매, 저승에서 죽어도 후세에 다시 만나 이승에서 미진한 우리 정을 백 년 다시 살아 보십시다. 임아 임아, 우리 낭군 어찌하여 살아날까? 아무리 원통해서 저승에 만나자고 빌어 봐도 지금 한번 죽어지면 모든 것이 허사로다."

하며, 통곡하는 옥단춘의 정상을 누가 아니 슬퍼하랴. 그러나 이혈룡은 태연한 말로 옥단춘에게 다짐하니라.

"춘아 춘아 내 사랑 옥단춘아, 너무 슬피 우지 마라. 네 울음 한 마디에 내 간장 다 녹는다. 내가 죽고 너 살거든 내 원수를 네가 갚고, 네가 죽고 내가 살면 네 원수를 내가 갚아 주마." (중략)

어사또의 호령이 내리자, 좌우의 나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육칠월 번개같이 곤장 태장으로 두들겨 대니 가로되,

"애고애고, 어사또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제가 죽을죄를 진 것은 저도 모를 귀신이 시켜서 그랬사오니, 죽고 사는 것은 어사또 처분이오니, 죽을죄 지은 놈이 무슨 말씀하오리까. 처분만 바라오며 잔명을 비옵니다."

"네 이놈, 나뿐 아니라, 죄 없는 옥단춘까지 나와 함께 죽이려 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네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살려 둘 수 없다."

어사또는 여기서, 전에 자기를 배에 싣고 물에 넣으러 가던 사공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 이 놈을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 버려라."

사공들이 어사또의 영을 듣고 김진희를 끌어다 배에 싣고 만경창파 물위로 떠나기 시작하니라. 이때 어사또가 어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 놈의 죄는 만 번 죽여도 부족하지만, 나로서 옛정을 생각하니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나졸을 불러서 분부하니라.

"너희들 급히 배를 따라가서 그 양반을 물속에 한참 넣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도루 건져서 배에 싣고 오너라."

"네잇." 하고, 나졸들이 강을 향하여 달려갈 적에, 별안간 뇌성벽력이 일어나더니 김진희를 벼락 쳐서 시체도 없이 분쇄해 버렸다. 나졸들과 사공들이 돌아와서 김진희가 천벌의 벼락을 맞고 머리털 하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연유를 아뢰니, 이혈룡 어사또는 그래도 살려 주려 하였던 김진희가 천벌로 참혹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옛정을 생각하고 슬퍼하더라.

작자 미상, 「옥단춘전」

3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사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를 통해 갈등과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③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과장과 희화화 수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⑤ 전기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를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40.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등장인물의 면모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옥단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사랑에 대해 변치 않는 지조를 보인다.
② 혈룡은 김진희와의 옛일을 마음에 담아 두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③ 혈룡은 김진희에게 죽을 뻔하였으나 너그럽게 용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④ 김진희는 부하들에게도 인정을 베풀지 않는 야박한 상관의 면모를 보인다.
⑤ 옥단춘은 관청에 매인 기녀의 신분이지만 계교를 써서 수청 요구를 받지 않았다.

41. 다음은 위 글을 TV 드라마로 각색하려고 연출자가 기록한 메모이다. 이에 대한 기획 회의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3점]

* 제목: 전체 글의 내용을 반영. '인간의 조건' -- ⓐ
* 어사또 출도 장면: 카메라 동원. 유의사항 전달 -- ⓑ
* 옥단춘이 사또에게 잡힌 뒤 혈룡에게 말하는 장면: 음악 준비 -- ⓒ
* 혈룡이 옥단춘을 달래는 장면: 어조 지시 -- ⓓ
* 김진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장면: 컴퓨터 그래픽 활용 - ⓔ

① ⓐ: 이 글은 이혈룡이나 김진희의 관계를 통해 친구가 원수가 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어. 따라서 제목은 범위를 좁혀 '참된 우정의 조건' 정도로 정하면 좋을 거야.
② ⓑ: 이혈룡이 어사또가 되어 출도하는 장면은 김진희에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야. 따라서 김진희의 놀란 표정이나 황급히 도망가는 관리들의 모습 등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어 속도감 있게 편집해야 하겠어.
③ ⓒ: 옥단춘은 혈룡이 어사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꼼짝없이 두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절박한 심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슬픈 느낌의 음악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지.
④ ⓓ: 혈룡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게 하여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기에 은연 중 자신의 신분을 암시하는 자신 있는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
⑤ ⓔ: 김진희의 죽음 장면에는 '벼락'이 동원되므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 좋겠어.

42. 위 글을 바탕으로 등장인물들이 <보기>와 같이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 중,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u>없는</u> 한자성어는?

<보기>
옥단춘: 저는 저 포악한 감사가 서방님을 협박하는 것을 보고 서방님이 (㉠)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혈룡: 네가 슬퍼 통곡할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한(하는) 감사를 징치하려면 기회를 기다려야 했느니라.
옥단춘: 그래도 너무 하셨습니다. 그 때 제가 (㉢)한(하는) 것을 보시고도 …….
이혈룡: 미안하구나. (㉣)(이)라 하였으니 이제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꾸나.

① 명재경각(命在頃刻) ② 패악무도(悖惡無道)
③ 자가당착(自家撞着) ④ 노심초사(勞心焦思)
⑤ 고진감래(苦盡甘來)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헐대 고쳐 올라앉으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야 다 뵈나다.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사.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A] 부용을 꽂았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었는 듯.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사뢰리라.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어와 너로구나.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개심대 고쳐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 이천 봉을 역력히 세어 보니
봉(峯)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저 기운 흩어 내어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끝이 없고 체세도 많기도 많구나.
[B] 천지 생겨날 때 자연히 되었지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하기도 유정하구나.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 본 이 그 뉘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고.
노국(魯國)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작단 말인고.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 것인고.
오르지 못하거든 내려감이 고이할까.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의 너럭바위 화룡소 되었구나.
천년 노룡(老龍)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C] 주야(晝夜)에 흘러내려 창해에 이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내리려는가.
음애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

– 정철, <관동별곡>

43.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 고조된 정서를 드러내었다.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③ 일정한 율격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려서 표현하였다.
④ 비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⑤ 계절감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44.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B], [C]의 첫 부분에는 모두 여정이 들어 있다.
② [A]와 [B]에서는 산을 보고 있고 [C]에서는 물을 보고 있다.
③ [A]와 [B]는 근경을 그리고 있고 [C]는 원경을 그리고 있다.
④ [A], [B], [C]에는 모두 화자의 주관적인 감상이 나타나 있다.
⑤ 화자가 있는 위치는 [A]는 진헐대, [B]는 개심대, [C]는 화룡소이다.

45. <보기>에 따라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관동별곡'은 정철이 45세 되던 선조13년(1580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후 강원도의 명소를 둘러보고 쓴 기행가사이다. 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로서의 책임감과 선정을 펴겠다는 포부, 그리고 당대의 현실에 대한 염려를 잘 보여 주고 있다.

① '너 같은 이 또 있는가.'에는 임금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②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걸을 만들고자'에는 청렴한 성품을 지닌 인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드러나 있다.
③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 본 이 그 뉘신고.'에는 현재보다 더 높은 벼슬길에 오르고 싶다는 야망을 내비치고 있다.
④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에는 화자가 오랫동안 선정의 뜻을 품고 때를 기다려 왔음이 암시되어 있다.
⑤ '음애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에는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펴고 싶다는 포부가 나타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②	2	③	3	③	4	⑤	5	④
6	⑤	7	②	8	③	9	③	10	②
11	①	12	⑤	13	④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③	19	①	20	④
21	④	22	⑤	23	④	24	③	25	①
26	②	27	⑤	28	④	29	⑤	30	①
31	⑤	32	①	33	⑤	34	④	35	④
36	③	37	②	38	⑤	39	③	40	⑤
41	⑤	42	③	43	⑤	44	③	45	③

[1~3] 화법

[지문 분석]

사회자 교내 매점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사회자의 역할 : 토의 내용 안내] 먼저 문제점을 정리한 후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자의 역할 : 토의 순서 안내]

학생 1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매점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먹고 그 쓰레기를 교내에 함부로 버린다는 점입니다.[학생1의 생각] 쉬는 시간이 지나면 복도와 계단 여기저기에 빵 봉지와 음료수 캔이 마구 떨어져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문제점 제시]

학생 2 매점에서 빵을 사먹고 배가 불러 점심밥을 많이 남기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는 국가적 낭비이자 개인의 건강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내 매점에서는 먹을 것을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문제점 제시 및 해결 방안 제시]

학생 3 매점을 이용하다가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시작된 후에 뒤늦게 들어오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끊겨서 방해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학생1,2가 언급한 문제점에 추가]

사회자 지금까지 나온 매점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점심밥을 많이 남기는 것,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사회자의 역할 : 발언 내용 요약, 정리] 그러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사회자의 역할 : 토의 순서 안내]

학생 1 매점에서 구입한 음식은 매점 안이나 매점 주변에서만 먹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해결 방안 제시] 또 매점 안이나 매점 주변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교내가 버려진 쓰레기로 더러워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 2 하지만 학생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없을 것입니다.[학생 1의 의견에 대한 반박] 차라리 매점에서 먹을 것을 팔지 못하게 해서 빵 봉지 같은 쓰레기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고, 매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만 팔도록 해야 합니다.[해결 방안 제시]

학생 1 그 의견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학생 2의 의견에 반박] 매점에서 먹을 것을 안 판다면 누가 교내 매점을 이용하겠습니까? 매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 전에 스스로 간식 먹는 것을 자제하여 점심밥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해결 방안 제시]

사회자 예, 매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한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사회자의 역할 : 발표 내용 보완]

학생 3 매점을 이용한 학생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학생회에서 캠페인을 하면 좋겠습니다.[해결 방안 제시] 그리고 수업 시간을 잘 지키자는 내용의 포스터나 표어 등을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들을 매점 주변에 부착함으로써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할 때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학생회에 우리 반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사회자의 역할 : 요약 정리]

[지문 확인]

* 갈래: 토의
* 특징: ① 사회자의 역할이 잘 드러남
②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명확히 드러남

1. <답> ②

이 토의에서 사회자가 토의의 발언 순서를 조정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지금까지 나온 매점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점심밥을 많이 남기는 것,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교내 매점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정리한 후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학생회에 우리 반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매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한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답> ③

[A]에서 학생 2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사회자가 '먼저 문제점을 정리한 후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토의 절차에 어긋난다.

① '많습니다', '것입니다', '생각합니다'라고 경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예의 바르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② 학생 1이나 학생 3보다 더 많이 발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 1이 발언을 끝낸 후에 발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오히려 해결 방안까지 말함으로써 토의 절차를 어기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답> ③

학생 2가 "차라리 매점에서 먹을 것을 팔지 못하게 해서 빵 봉지 같은 쓰레기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고, 매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만 팔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회자가 "매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한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이 “학생들이 점심시간 전에 스스로 간식 먹는 것을 자제하여 점심밥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학생 1이 “매점에서 구입한 음식은 매점 안이나 매점 주변에서만 먹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학생 3이 “매점을 이용한 학생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학생회에서 캠페인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학생 3이 “수업 시간을 잘 지키자는 내용의 포스터나 표어 등을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들을 매점 주변에 부착함으로써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할 때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발표 준비 과정
학생1: 다음 주에 우리 조가 발표할 차례인데, 발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대화의 목적
학생2: 그래. 우리 소화기의 사용 방법[발표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지?
학생3: 응, 맞아. 그런데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깐 소화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더라. 그래서 모든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다 소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발표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말이야.[문제점 인지 : 발표 시간의 제한과 소화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는 어렵다.]
학생1: 그럼 소화기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만 언급하자. 대신 우리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어때?[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학생2: 좋은 생각이야.[긍정적 반응]그리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친구들의 경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청중의 관심을 끄는 게 좋겠어.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말이야.[의견 제시]
학생1: 친구들의 배경지식을 점검해서 발표의 내용과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좋겠어. 그리고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의견 제시]
학생2: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할 때에는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건 어때?[의견 제시]
학생3: 알았어. 너희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 그런데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자신의 상황에 대한 걱정]
학생1: 소화기에 대해서는 우리들 중에 네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준비한 자료도 충분하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격려]
학생2: 그래. 소화기는 친구들도 흥미로워하는 소재이니까 우리 반 친구들도 네 발표를 잘 들어 줄 거야.[격려]
학생3: 그대도 너무 불안한데.....
학생1: _____
(나) 발표 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화재 사고를 기억하시죠?[청중들이 알고 있는 사고를 제시하며 관심과 흥미 유발] 학교 쓰레기장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학생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재빨리 불을 끈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지요. 만약 이 학생이 소화기의 사용법을 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은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발표할 대상 소개]
(실제 소화기 사진을 준비한다.)[시각적 자료 활용] 우선 여기에 있는 소화기를 봐 주세요. 소화기에는 이렇게 A, B, C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다.) 이것은 소화 가능한 화재의 종류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A는 일반 화재용으로 나무나 종이, 섬유 등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호입니다. 유류 화재용을 나타내는 B는 기름과 같은 가연성 액체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에 사용 가능한 것은 C로 표기합니다. 그럼 소화기처럼 A, B, C가 함께 표시되어 있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린다.)[묻고 답하는 방식 활용] 모든 화재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화기는 소화재의 압축 방식에 따라서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아시나요? 얼마 전 화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소화기는 소화 약제 성분에 따라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분말 약제가 들어 있는 분말 소화기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도 바로 이 분말 소화기이므로, 오늘은 이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할 대상 소개]
분말 소화기의 사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사를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 중 소화기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20% 정도뿐이라고 합니다.[구체적인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음]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인터넷에 소화기 사용법이 사진[시각적 자료 활용]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불이 나면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뺍니다. 소화기에서 안전핀을 뺄 때에는 손잡이를 잡으면 안전핀이 잘 빠지지 않으므로 소화기의 몸체를 잡고 빼야 합니다. 그런 다음 불이 난 곳을 향해 비로 쓸 듯이 분말을 뿌려 주어야 합니다. 분말 소화기는 산소의 공급을 막아 불을 끄는 방식이므로 불이 난 곳에 넓게 덮어씌우듯 뿌려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뿌려야 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제는 소화기의 사용법을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학교는 어디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이 그림을 보세요.[시각적 자료 활용] 이렇게 각 교실마다 2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복도에도 여러 대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니 평소에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말로 된 소화 약제가 굳어 버려서 정작 필요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화기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해 언제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화 약제가 굳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 좋습니다.[소화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이것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통해 여

러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기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사말]

[지문 확인]

* 갈래: 발표 준비 과정과 인터뷰
* 특징
① 발표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② 인터뷰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4. <답> ⑤
'학생 3의 발표문 초고'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바람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발표를 마무리할 때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주자는 계획은 실제 발표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5. <답> ④
ⓐ를 통해 '학생 3'이 발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 1'이 '학생 3'에게 해 줄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얻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6. <답> ⑤
발표를 들은 학생이 당장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발표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으며 수용하는 태도로 들은 것이다. 발표 내용이 현실 상황에 효용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며 들은 것과는 거리가 있다.

7. <답> ②
이 발표문에서 통계수치가 나오지만, 명확하게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8. <답> ③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유명 연예인이 된 졸업생을 초빙하여 강연을 여는 것은 참여와 감동이라는 축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① 첫째 자료에서 일부 학생들의 발표 위주 축제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학생들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발표 위주의 학교 축제'를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 둘째 자료, 셋째 자료, 넷째 자료와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함께 어울리는 축제 행사 개발'은 적절한 방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셋째 자료와 넷째 자료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면 '참여와 감동'이라는 축제의 취지에 걸맞고, 축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둘째 자료, 셋째 자료, 넷째 자료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어울리는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을 기대 효과로 제시할 수 있다.

[9~10] 작문
[지문 분석]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일단 딱딱하고 편평한 바닥에 눕힌다.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이때 주의할 것은 심하게 몸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쓰러진 사람이 반응이 없다면 주위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이때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으면 다들 서로 미루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을 지정해서 말해야 한다.[응급조치하는 방법 설명]
그런 다음[순서] 기도 유지 및 호흡[구체적 방법]을 확인한다. 한 손으로 이마 부분을 눌러 기울이고 다른 손으로 턱의 뼈 부분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호흡음이 있는지 듣고 공기의 흐름이 있는지 느끼는 방법으로 시행한다.[구체적 방법] 만약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판단되면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를 밀고 있는 손의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다음 1초 동안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2회 공기를 불어 넣는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기도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인공호흡을 하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도 유지를 하고 해야 한다는 점이다.[응급조치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설명과 유의점]
그 다음[순서] 흉부 압박을 시작한다.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쪽 손바닥의 두툼한 아랫부분을 놓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한다. 아래쪽 손의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팔꿈치를 펴고 팔을 바닥에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한다. 분당 100회 속도로 약 4~5cm 깊이로 압박하며 압박과 이완 시간은 같은 정도로 하고 각각의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숫자를 하나, 둘, 셋 ~ 서른까지 세어 가면서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수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흉부 압박 시 중단 시간이 10초 미만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응급조치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설명과 유의점]

9. <답> ③
작문 주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작문 구상에서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값진 정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실제 글에서도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과정과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이 글의 주제는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났을 때 구조자는 어떤 방법과 절차로 응급조치해야 하는가이다. 따라서 자세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글을 전개해야지 비유와 유추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이 글의 목적은 갑자기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절차에 따라 써야 한다. 따라서 인과 관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 글에서도 쓰이지 않았다.

④ 문제 상황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났을 때이므로, 논리적으로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은 전략이 아니다.
⑤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났을 때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비교와 분석의 방식은 이 글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10. <답> ②
2문단 첫 문장을 보면 기도 유지 및 호흡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호흡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인공 호흡을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① 글의 초점이 '의식을 잃은 사람'의 모든 상황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만 한정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도록 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응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③ ㉢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환자의 입을'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 앞의'압박'이라는 말은 '강하게 내리누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완'은'굳어서 뻣뻣해진 근육이나 신경 따위가 원래의 상태로 풀어짐, 혹은 느슨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압박한 가슴이 완전히 올라와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오그라들거나 줄어듦'을 의미하는 '수축'보다 '이완'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
⑤ 앞뒤 내용으로 보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앞의 내용과 상반될 때 쓰는 '그러나'를 '그리고'로 고쳐야 한다.

11번 문법 이론: 단어 간의 의미 관계
① 의미의 계열 관계
• 유의 관계: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관계
예 옥수수 – 강냉이, 동무 – 친구
• 반의 관계: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
예 남편 – 아내, 높다 – 낮다, 오다 – 가다
• 상하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되는 관계
예 새 – 참새·제비·매·까마귀·독수리 등
• 부분 – 전체 관계: 한쪽이 다른 쪽의 부분이 되는 관계
예 몸 – 머리·팔·몸통·다리 등, 팔 – 어깨·위팔·팔꿈치·아래팔 등
② 의미의 복합 관계
• 다의 관계: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관계
예 발 「명사」
「1」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 부분.
「2」 가구 따위의 밑을 받쳐 균형을 잡고 있는, 짧게 도드라진 부분.
「3」 '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한시(漢詩)의 시구 끝에 다는 운자(韻字).
「5」 한자의 아랫부분을 이루는 부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동음이의 관계: 소리는 같지만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단어가 가지는 관계

11. <답> ①
사용된 단어가 중심적 의미로 쓰였는지, 주변적 의미로 쓰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맥의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① 에서 '예단'은 '미리 판단한다.'라는 본래의 의미 그대로 쓰였다는 점에서 중심적 의미의 용례라고 할 수 있다.
② '양식'은 중심적 의미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거리'를 뜻하고, 주변적 의미로는 '지식·물질·사상 등의 원천이 되는 것의 비유'로 쓰인다.
③ '이정표'는 중심적 의미로는 '도로나 선로 등의 길가에 거리 및 방향을 적어 세운 표지'를, 주변적 의미로는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을 뜻한다.
④ '처방'은 본래 '병의 증세에 따라 약재를 배합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일처리의 방법(→ 대책)'이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⑤ '고질병' 또는 '고질'은 중심적 의미로는 '오래되어 고치기 어려운 병. 지병'을, 주변적 의미로는 '오래되어 바로잡기 어려운 나쁜 버릇'을 뜻한다.

12번 문법 이론: 접속 조사(接續助詞) :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

용례	예
와/과, 에(다), 하고, (이)며, 랑 ……	• 닭과 오리, 사과와 배 • 수철이는 밥에(다) 떡에(다) 잔뜩 먹었다. • 희철아, 붓하고 벼루하고 가져 오너라. • 상 위에는 감이며 밤이며 없는 것이 없었다. • 수진이는 사과랑 배를 먹었다.

12. <답> ⑤
<보기>는 우리말에서 접속 조사 및 접속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와/과'의 쓰임과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와/과'는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기능의 접속 조사와 '대상 간 비교', '대상과 함께 하는 행동', '상대가 되는 대상' 등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격 조사로의 쓰임이 있다. ⑤ 에서 ㄷ의 '철수와'의 '와'는 철수를 상대로 한다는 데서 d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영희와'의 '와'는 a나 c의 쓰임을 나타내므로 '철수와'의 '와'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① ㄱ의 '와'는 민수와 형수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서 생략하게 되면 쉼표를 넣어 주어야 명확한 표현이 된다.
② ㄱ은 민수와 형수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했는지, 아니면 따로 공부했는지가 불명확한 의미의 모호성을 일으키는 문장이다.
③ ㄴ의 '원작과'의 '과'는 대상 간 비교를 하는 기능을 하므로 b와 관련되어 있다. ㄱ의 '민수와'는 앞에 주어가 필요 없지만 ㄴ의 '원작과'는 반드시 앞에 주어가 필요하다.
④ ㄴ의 '친구와'의 '와'는 '친구'라는 대상을 가리키며 영화를 '보았다'는 행동을 함께함을 나타낸다.

13번, 14번 문법이론: 서술어의 자릿수 :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

갈래	의미	예
한 자리 서술어	주어를 꼭 요구하는 것으로, 성상 형용사, 자연의 작용, 사건의 발생 등을 나타내는 자동사가 이에 속한다.	장미꽃이 붉다. 비가 내린다. 전쟁이 일어났다.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목적어나 보어, 필수 부사어를 꼭 요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타동사, 대칭 동사, 이동 동사, 소유 • 주관성 형용사 등이 이에 속한다.	나는 철수를 사랑한다. 철수와 영희가 결혼했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그는 미국으로 떠났다. 책이 연구실에 있다.
세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외에 필수 부사어를 꼭 요구하는 것으로 수여 동사, 발화 동사, 사동사 등의 특수한 타동사가 이에 속한다.	나는 동생에게 책을 주었다. 그는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그는 나를 바보로 간주했다.

13. <답> ④
A의 첫 문장에 쓰인 '논다'와 A의 둘째 문장에 쓰인 '논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는 같지 않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되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이고, 후자의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이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자의 경우 '움직인다'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 한 자리 서술어, 후자의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서술어가 같다고 할지라도 사용되는 문맥의 의미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14. <답> ①
'향했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먹였다'는 주어 '엄마는'과 필수적인 부사어 '아기에게', 그리고 목적어 '젖을'을 요구하고 있다.
③ '여긴다'는 주어 '그는', 목적어 '영희를', 필수적 부사어 '애인으로'를 요구하고 있다.
④ '불렀다'는 주어 '우리는'과 목적어 '그를', 그리고 부사어 '형이라고'를 요구하고 있다.
⑤ '간주했다'는 주어 '그는'과 목적어 '부엌칼을', 그리고 부사어 '흉기를'을 요구하고 있다.

15번 문법 이론: 음운의 축약과 탈락
① 음운 축약

두 개의 음운이 만나 제3의 음운이 되는 것

㉠ 음운 축약의 갈래

갈래	음운 환경	예
자음 축약	'ㄱ, ㄷ, ㅂ, ㅈ' + 'ㅎ' → 'ㅋ, ㅌ, ㅍ, ㅊ' 'ㅎ'+ 'ㄱ, ㄷ, ㅂ, ㅈ' → 'ㅋ, ㅌ, ㅍ, ㅊ'	잡히다 → [자피다], 좋다 → [조타]
모음 축약	'ㅏ, ㅓ, ㅗ' + 'ㅣ' → 'ㅐ, ㅔ, ㅚ' 'ㅣ' + 'ㅓ, ㅗ, ㅐ' → 'ㅕ, ㅛ, ㅒ'	가리+어 → 가려, 오+아서 → 와서 두+었다 → 뒀다

② 음운 탈락

앞뒤 음절의 모음이 서로 만날 때 한 음절이 탈락한다.

㉠ 음운 탈락의 갈래

갈래	음운 환경	예
자음 탈락	동음 탈락	간난 → 가난
	'ㄹ' 탈락	딸님 → 따님, 울+는 → 우는
	'ㅇ' 탈락	종용 → 조용
	'ㅅ' 탈락	그것이 → 그게
모음 탈락	어미 '-아/-어' 탈락, '으'탈락, '우'탈락	가아 → 가, 쓰어 → 써, 푸다 → 퍼 깨어 → 깨, 흔하지 → 흔ㅎ지→ 흔치 건너어도 → 건너도, 서었다 → 섰다 가았다 → 갔다

15. <답> ⑤
<보기>에서는 발음상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음운 축약 및 음운 탈락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⑤의 '서슴지'는 그 기본형 '서슴다'의 어간 '서슴-'에 연결 어미 '-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생략된 형태소가 없다. 따라서 음운 축약이나 탈락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① 그것이 → 그게(자음 'ㅅ' 탈락)
② 생각하지 → 생각지(음절 '하-' 탈락)
③ 긴하지(중요하지) → 긴치(모음 'ㅏ' 탈락, 자음 축약: 'ㅎ '+ 'ㅈ' → 'ㅊ')
④ 되었다 → 됐다(모음 축약: 'ㅚ' + 'ㅓ' → 'ㅙ')

[16~19]독서-인문

[지문 분석]

'기억'은 과거를 상기하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으로, 기억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다.[기억의 주체 = 개인] 그런데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바슈는 기억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고 '기억의 사회적 틀'을 지적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기억도 사회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기억에 대한 알바슈의 견해] 알바슈를 좇아 기억을 집단기억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기억의 속성은 쉽게 드러난다. 우선 기억은 과거보다는 현재 지향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밀랍 판의 압인처럼 고정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알바슈의 관점에 따른 기억의 의미]

1문단: 알바슈가 인식하는 '기억'의 의미

기억의 현재 지향성에 따라 기억은 역사를 가지게 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기억은 시점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인과의 방식으로 내용 전개] 프랑스의 역사가 노라가 주목하는 '기억의 장'은 기억의 변화를 말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동일한 과거에 대해 일관된 하나의 기억이 아니라 다양하고 상이한 복수의 기억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현재 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현재의 토양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기억이기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기억은 걸러져서 어떤 것은 계속 존속하고, 어떤 것은 억압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2문단: 기억의 현재성과 역사성

기억이 선택되는 것은 그것이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개인적 기억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의미를 가질 때만이 집단기억으로 정착할 수 있다.[개인적 기억이 집단기억으로 정착되는 조건]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즉 기억할 만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인 것이다. 집단이 없으면 기억도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이 해체되면 기억도 상실된다.

3문단: 집단기억의 속성

기억에 대한 집단의 관심과 태도는 집단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다. 집단은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동의 기억을 통해 일체감을 확인하고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집단의 속성] 기억이 상이함을 억압하고 유사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집단적 연속성과 응집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인과의 방식으로 내용 전개] 집단이 기억을 만들듯, 기억이 집단을 만드는 것이다.[집단과 기억의 관계] 그런데 집단 정체성에 의해 구조화되는 기억은 당파적일 수밖에 없다. 집단 정체성의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기억은 사회의 권력 구조에서 비롯되는 집단의 당파성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기억은 사회적 권력 관계에 종속되고 집단의 이익과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억을 둘러싼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은 집단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억의 기능이 당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의 내용까지 결정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4문단: 기억과 집단 정체성과의 관계

기억이 집단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역사의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기억이 역사의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같은 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집단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미국 사회의 집단기억을 분석한 미국의 역사가 노빅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노빅은 미국 사회에서 홀로코스트 기억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유대인 대학살의 기억이 유대교를 대신하여 미국 사회 내 유대인들의 종족적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과정을 밝혀낸다. 노빅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비극의 역사적 무대가 아닌 미국에서 1970 년대 이후 유대인뿐 아니라 미국 시민 전체의 기억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기억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일종의 시민 종교로 기능하는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5문단: 집단기억에 대한 노빅의 연구

노빅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기억이란, 과거의 체험이 실재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성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집단기억에 대한 노빅의 연구] 이같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집단기억에 대해 노빅은 매우 비판적이다. 기억이 역사의 맥락을 벗어나 신화와 종교의 차원에서 절대화되면서 역사적 현상을 이해 불가능한 초역사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6문단: 집단기억에 대한 노빅의 비판

• 해제 : 이 글은 '기억'이 갖는 현재성과 역사성의 의미를 밝히면서, 그것이 집단 기억화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빅의 연구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기억은 고정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며 어떤 주체에 의해 선택되어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집단의 관심과 태도는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기억이 집단적 정체성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역사의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 주제 : 기억의 속성과 집단기억의 한계

[지문 확인]

1문단: 알바슈가 인식하는 '기억'의 의미

• 알바슈는 기억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경계
• 알바슈는 '기억의 사회적 틀'을 지적하며 어떤 개인적인 기억도 사회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2문단: 기억의 현재성과 역사성

• 기억의 현재 지향성에 따리 기억은 역사를 가지게 된다.
→ 원인 :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기억은 시점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3문단: 집단기억의 속성

• 개인적 기억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의미를 가질 때에만 집단기억으로 정착할 수 있다.
• 집단이 해체되면 기억도 상실된다.

4문단: 기억과 집단 정체성과의 관계

• 집단은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 공동의 기억을 통해 일체감을 확인, 유대감 강화
• 집단이 기억을 만들고, 기억이 집단을 만든다.

5문단: 집단기억에 대한 노빅의 연구

• 기억이 집단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역사의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6문단: 집단기억에 대한 노빅의 비판

• 집단기억이란, 과거의 체험이 실재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성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구성된다.

16. <답> ③
기억의 현재 지향성에 따라 기억은 역사를 가지게 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기억은 시점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실되는 기억 때문에 역사가 존재한다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① 기억은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기에 선택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다.
② 2 문단에서 '노라'는 다양하고 상이한 복수의 기억이 존재함을 알려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⑤ 알바슈는 '기억의 사회적 틀'을 지적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기억도 사회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알바슈를 좇아 기억을 집단기억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기억은 과거보다는 현재 지향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17. <답> ④
이 글은 집단기억이 갖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노빅의 연구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는 집단기억이 우리 민족에게 갖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사례로 이 글을 보완할 경우, 집단기억의 양면성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18. <답> ③
'노빅'과 '핀켈슈타인' 모두 집단기억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집단기억이 현재의 필요성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구성될 때, 그것이 신성시되어 역사적 현상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 ㉡ 모두 집단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집단기억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④ ㉡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담보로 하여 받은 보상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⑤ ㉡은 집단기억 주체의 범위를 '미국 내 있었던 일부 유대인 엘리트'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19. <답> ③
'상실되다'의 의미는 '없어지거나 사라지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기운이 깊이 스며들거나 배어들다.'라는 의미의 ① '잦다'와는 거리가 멀다.
② 현상의 기운이나 상태가 점차 약해지거나 사라져 없어지다.
③ 맺힌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없어지다.
④ 사람이 몸이나 마음속에 가졌던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다.
⑤ 어떤 일에 대한 열의나 생각 따위가 줄거나 가라앉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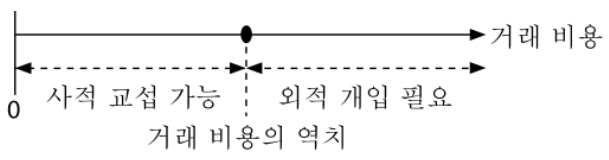
[20~23] 독서-사회
[지문 분석]
목장의 소가 인근 옥수수 밭의 농작물을 훼손하여 목장 주인과 농부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울타리를 목장 주변에 쳐야 할까 아니면 옥수수 밭 주변에 쳐야 할까?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또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질문 형식으로 갈등 상황을 나열하여 제시 / 독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 당사자들 간의 적절한 타협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정부 당국의 강제적 개입이 필요할까?[질문 형식]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학의 이론들은 이들 법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교섭 이론을 들 수 있다.[설명할 대상 소개]

1문단 : 교섭 이론의 개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거래 당사자끼리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적 잉여[개념어]'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교섭은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경제학에서 '외부성[개념어]'이란 의도성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흡연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과수원이 주변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2문단 : 협력적 잉여와 외부성의 개념
코즈 교수는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총칭하는 의미로 '거래 비용[개념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섭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거래 비용의 예시]

3문단 : 코즈 교수의 거래 비용의 개념
코즈 교수는 거래 비용이 0인 경우, 법에 의지하여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거래 비용은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가지며, 거래 비용의 수준에 따라 교섭이 가능한지 혹은 교섭이 어려워 다른 대체적 수단이 필요한지가 결정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 비용의 범위를 교섭 영역과 비교섭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거래 비용의 역치가 존재한다. 여기서 '거래 비용의 역치[개념어]'란 교섭이 가능한 거래 비용의 최대치로, 이 역치보다 거래 비용이 적으면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과 같은 강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거래 비용의 역치와 거래 비용과의 관계를 통한 설명]

4문단 : 코즈 교수의 거래 비용의 역치 이론



그리고 이 역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 역치를 갖는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도 교섭이 성공할 것으로 믿을 것이다. 반면 낮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 역치를 갖는 사람은 보다 낮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그는 보다 많은 상황에서 법의 개입을 선호하게 된다.[거래 비용

의 역치가 사람마다 다른 경우에 대한 구체적 설명]
5문단 :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래 비용의 역치
이처럼 경제학의 원리는 법이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률가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사적 교섭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구성한다.'라는 '규범적 코즈의 정리[개념어]'나 '사적 합의의 실패에 의한 손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구성한다.'라는 '규범적 홉스의 정리[개념어]'는 법률가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6문단 : 규범적 코즈의 정리와 규범적 홉스의 정리의 가치

• 해제: 경제학적 원리가 법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을 교섭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글이다.

• 주제: 경제학적 원리의 가치

[지문 확인]
1문단 : 교섭 이론의 개념

• 법률이나 정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학의 이론들은 이들 법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 = 교섭 이론

2문단 : 협력적 잉여와 외부성의 개념

• 협력적 잉여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거래 당사자끼리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
• 외부성 : 의도성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3문단 : 코즈 교수의 거래 비용의 개념

• 거래 비용 :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총칭 교섭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
• 거래 비용의 예시 :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등

4문단 : 코즈 교수의 거래 비용의 역치 이론

• 거래 비용의 역치 : 교섭이 가능한 거래 비용의 최대치
•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거래 비용이 적으면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과 같은 강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5문단 :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래 비용의 역치

•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 역치를 갖는 사람
: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도 교섭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 낮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 역치를 갖는 사람
: 낮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그는 보다 많은 상황에서 법의 개입을 선호하게 된다.

6문단 : 규범적 코즈의 정리와 규범적 홉스의 정리의 가치

• 경제학의 원리는 법이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률가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20. <답> ④
지문에 따르면 거래 비용은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총칭하는 말이다. 외적 개입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비용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21. <답> ④
거래 비용의 역치는 교섭이 가능한 거래 비용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즉,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거래 비용이 많이 들면 사적 교섭이 불가능하여 외적 개입이 필요하고,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거래 비용이 적게 들면 사적 교섭이 가능하여 외적 개입이 불필요하다.
<'갑'의 경우>
•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작은 구간 (=외적 개입이 불필요한 구간) : A
•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큰 구간 (=외적 개입이 필요한 구간) : B, C

<'을'의 경우>
•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작은 구간 (=외적 개입이 불필요한 구간) : A, B
•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큰 구간 (=외적 개입이 필요한 구간) : C

위의 내용으로 보아 A 구간은 '갑'과 '을' 모두에게 외적 개입이 불필요한 구간이다. 또 C 구간은 '갑'과 '을'에게 모두 외적 개입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런데 B 구간은, '갑'에게는 외적 개입이 필요하고, '을'에게는 외적 개입이 불필요한 구간이다. 따라서 '갑'과 '을'이 동일한 의견을 보일 부분은 A와 C이다.

22. <답> ⑤
'방목제한제'는 목장주가 울타리를 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방목제한제'의 규정에 따르면 목장주는 16만 원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 법 규정에 의지하지 않고 교섭을 선택하여 비용을 13만 원으로 줄였다. 따라서 목장주가 교섭보다 법적 강제를 선호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③ '규범적 홉스의 정리'는 손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부가 옥수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비용이 10만 원 드는 것)이 목장주가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비용이 16만 원이 드는 것)보다 사회적 손실이 적다. 따라서 규범적 홉스의 정리에 따른다면 목장주가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하는 것(방목제한제)보다 농부가 옥수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치도록 법을 구성할 것이다.
④ 옥수수 밭이 목장 옆에 있어서 옥수수 밭을 경작하는 농부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다. 이는 의도성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부정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23. <답> ④
ⓓ의 경우는 '여러 회사 중 우리 회사가 뽑힌 상황'이므로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이라는 뜻을 지닌 '선정(選定)'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 '설정(設定)'은 '새로 만들어 정해 둠.(상황 설정, 목표 설정 등)' 또는 '제한 물권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위.(담보 설정)' 등의 의미로 쓰인다.

[24~27] 독서-과학
[지문 분석]

바이러스는 살아 있는 생명체에 기생해서 산다.[바이러스의 특징]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까지도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이다. 바이러스의 이러한 성질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해로운 미생물을 없애는 수단으로 바이러스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바이러스를 세균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특별히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뜻에서 '박테리오파지[어원]'라 부른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 안에서 스스로 증식하면서 살아가므로 숙주가 되는 세균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박테리오파지'의 특성]

1문단: '박테리오파지'의 의미와 특성

박테리오파지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한 데렐은 이러한 파지의 이용 가능성을 궁리하던 끝에, 장내에 기생하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질균을 대상으로 파지의 효용성을 실험해 보았다.[데렐의 최초 실험] 그러나 실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실험실에서는 증식시킨 세균의 배양액에 파지를 접종하면 분명히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환자들에게는 같은 박테리오파지를 한 컵이나 들이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들이 여전히 살아남았다.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는 몸 안으로 들어간 박테리오파지가 제 기능을 시작하기도 전에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꼽혔다. 간장과 비장 그리고 골수 등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식세포나 백혈구에 의해 급속히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지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파괴되면서 배출한 독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치료 방법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해로운 세균을 죽이기 위해 박테리오파지를 직접 투여하는 치료 방법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패 원인 분석]

2문단: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려는 데렐의 실험 결과와 실패 원인 분석

시간이 흐르면서 박테리오파지의 정제 기술이 크게 발전한 후, 그 동안 박테리오파지의 이용 가능성을 눈여겨보던 영국의 학자들이 1980년대에 다시 실험에 도전하였다. 오래 전부터 병원성 세균에 의한 동물 질병은 대체로 항생제를 이용하여 해결해 왔지만, 세균은 점차 그에 대한 내성을 갖추면서 항생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성 세균을 직접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박테리오파지의 이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학자들은 병원성 대장균을 파괴할 수 있는 몇 종류의 박테리오파지를 자연 환경에서 가려낸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세균을 파괴하는 능력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병원성 대장균 균주를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찾아냈고, 같은 병원성 균주로 고통 받는 생쥐에게 주입했더니 분명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연구 성과]

3문단: '박테리오파지'의 이용을 위한 연구의 진척 현황

더욱이 이 치료의 효과는 몇 가지 항생제를 처리한 경우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계속해서 이루어진 실험에서 박테리오파지에 내성을 보이는 대장균 변이종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행인 것은 이들 변이종의 병원성은 부모 세균의 병원성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항생물질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변이종은 원래의 세균과 비슷하거나 그보다도 더 강한 병원성을 나타내기 마련인데, 파지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병원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실험 결과였다. 파지를 이용한 병원성 대장균의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연구 성과]

뒤이어 송아지와 새끼 돼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항생물질 등을 이용하던 이제까지의 일반화된 치료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임을 증명하였다.[연구 성과]

4~5 문단: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치료의 효용성

• 해제: 세균을 숙주로 삼으면서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의 특성과 이를 이용한 치료법의 연구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박테리오파지'가 지닌 기본적인 특성을 밝힌 후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세균성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실험과 연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치료법이 화학 약품을 이용한 치료법에 비해 지니고 있는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 치료법이 지닌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치료법의 연구 현황과 효용성

[지문 확인]
1문단: '박테리오파지'의 의미와 특성

• '박테리오파지'의 특성 : 세균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2문단: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려는 데렐의 실험 결과와 실패 원인 분석

• 최초 실험 실패 • 실패 원인 : 몸 안으로 들어간 박테리오파지가 제 기능을 시작하기도 전에 파괴

3문단: '박테리오파지'의 이용을 위한 연구의 진척 현황

실험실에서 병원성 대장균 균주를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찾아냈고, 같은 병원성 균주로 고통 받는 생쥐에게 주입했더니 분명한 치료 효과가 나타남

4~5 문단: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치료의 효용성

연구 성과(치료 효과)

24. <답> ③
환자들에게 박테리오파지를 한 컵이나 들이키게 했다든가 박테리오파지가 제 기능을 하기도 전에 간장, 비장, 골수 등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나 백혈구에 의해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2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데렐은 박테리오파지를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마시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①은 1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②는 2문단의 처음 부분을 통해서, ④는 3문단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⑤는 3문단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5. <답> ①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박테리오파지와는 달리 용원성 파지는 숙주 세포의 염색체와 결합하여 복제되면서 세균들이 분열할 때마다 새로 생겨난 세균의 DNA의 일부로 포함된 채 살아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균을 죽이는 대신에 세균의 DNA의 일부처럼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용원성 파지의 이용 방법의 핵심은 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DNA에 침투하여 그 세균의 속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병을 일으키지 않는 세균으로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④ <보기>에서, 용원성 파지는 '숙주 세포의 염색체와 결합'하며 새로 생겨난 세균의 'DNA'의 일부로 포함된 채 살아간다고 했으므로 '세균이 DNA를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특수한 유전자를 넣어 주는 운반체'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는 설명을 통해서도 부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26. <답> ②
앞선 연구에서 데렐이 실패했던 이유로는 몸 안으로 들어간 박테리오파지가 체내의 대식세포나 백혈구에 의해 미리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파지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파괴되면서 배출한 독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므로 ㉠에서 말한 '정제 기술의 발전'은 두 가지 이유 중 조제 과정에서 세균이 배출하는 독소 성분이 섞이는 문제를 해결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4문단과 5문단에서 이어진 최근의 연구 동향이나 결과에 대한 설명에서도 여러 종류의 세균을 파괴하는 능력을 동시에 지닌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⑤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로서, 근본적으로 살아 있는 생명체에 기생해서만 생존과 증식이 가능하다.

27. <답> ⑤
4문단에서 박테리오파지에 내성을 지닌 대장균 변이종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내성을 지닌 변이종 세균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② 발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③, ④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숙주로 삼고 그 안에서 스스로 증식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28~30] 독서-기술
[지문 분석]

호텔이나 큰 빌딩에 가면 직접 손으로 문을 열지 않아도 다가가면 저절로 열리고, 통과하면 저절로 닫히는 문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동문'이라고 부른다.[자동문의 개념] 자동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자동문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질문 형식으로 덕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 자동문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몸무게'에 의한 방법이고, 둘째는 '전자'에 의한 방법이며, 셋째는 '도어 엔진'에 의한 방법이다.[설명할 대상 소개]

1문단: 자동문의 원리(종류) 세 가지

첫째, '몸무게'를 이용한 자동문은 현재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방법은 사람이 문 앞의 발판을 밟고 서면 열리는 방식[기본 원리]이다. 즉, 사람의 몸무게가 발판 밑에 있는 스위치를 작동시켜 모터를 움직이게 하거나 서게 하는 것이다.[특징 정리]

2문단: '몸무게'를 이용한 자동문

둘째, '전자'를 이용한 자동문은 문의 위쪽에다 광전관을 장치한 것으로, 문에 사람이 접근하면 광전관 속으로 들어가는 빛을 가로막게 되고, 빛이 막히면 모터 회로가 작동해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게 하는 방식[기본 원리]이다. '전자'를 이용한 자동문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광센서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빛의 양이 변화하는 것을 민감하게 감지해 낸다. 센서는 힘, 빛, 열, 진동, 전자기 등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 주는 장치로서, 전자 부품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직접 대상에 접촉하거나 그 가까이에서 데이터를 알아내어 필요한 정보를 나중에 처리하기 편리한 신호로 바꿔서 전달한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 의해 빛이 차단되면 광센서가 느낄 수 있는 빛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광센서가 이를 감지하게 된다. 이것은 빛이 직진하여 물체를 투과하거나 물체에 부딪쳐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참고로 센서는 지진계, 음주 측정기, 연기 탐지기, 수중 음파 탐지기, 동전 검사기, 금속 탐지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특징 정리]

3문단: '전자'를 이용한 자동문

셋째, '도어 엔진'을 이용한 자동문은 우리가 흔히 보는 지하철 전동차의 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하철 전동차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지만, 이것은 차장실(운전실)에 있는 스위치를 움직임으로써 각 문에 장치되어 있는 엔진을 작동시켜 문을 여닫는 방식[기본 원리]이다. 자동문의 도어 엔진은 문을 자동으로 개폐시켜 주는 장치인데,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느냐에 따라 공압식, 유압식, 전동식으로 나눠진다. 특히 유압식은 크거나 무거운 문을 열고 닫는 데에 사용된다. 도어 엔진의 핵심은 공기 압력 실린더이다. 문을 움직이는 실린더와 링크 기구는 보통 문 위쪽에 내장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도어 엔진의 공기 압력을 빼 버리면 문을 손으로 열 수 있도록 비상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특징 정리]

4문단: '도어 엔진'을 이용한 자동문

• 해제: 이 글은 자동문의 종류에 따른 작동 원리를 고찰하고 있다. 글쓴이는 자동문의 종류를 몸무게의 의한 것, 전자에 의한 것, 도어 엔진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각각의 작동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주제: 자동문의 종류에 따른 작동 원리 고찰

[지문 확인]
1문단: 자동문의 원리(종류) 세 가지

• 설명할 대상 소개 : 자동문의 원리(종류)

2문단: '몸무게'를 이용한 자동문

• 사람이 문 앞의 발판을 밟고 서면 열리는 방식

3문단: '전자'를 이용한 자동문

• 문의 위쪽에다 광전관을 장치한 것으로, 문에 사람이 접근하면 광전관 속으로 들어가는 빛을 가로막게 되고, 빛이 막히면 모터 회로가 작동해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게 하는 방식

4문단: '도어 엔진'을 이용한 자동문

• 지하철 전동차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지만, 이것은 차장실(운전실)에 있는 스위치를 움직임으로써 각 문에 장치되어 있는 엔진을 작동시켜 문을 여닫는 방식

28. <답> ④
마지막 문단을 보면 도어 엔진의 종류가 공압식, 유압식, 전동식으로 나누어지고 특히 유압식은 크거나 무거운 문을 개폐하는 데 사용된다는 설명은 나와 있지만, 유압식 도어 엔진이 문을 여닫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압력이 얼마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① 전동차의 자동문에서 도어 엔진이 하는 역할은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센서가 이용되는 기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전자'를 이용한 자동문을 작동하게 하는 핵심 장치는 '광센서'임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글 2문단과 3문단을 참고하면 자동문은 몸무게를 이용하는 방식이든 전자를 이용하는 방식이든 둘 다 모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 <답> ⑤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도어 엔진의 공기 압력을 빼는 것은 도어 엔진 자동문의 원리가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시에 문을 손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비상 개폐 장치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2문단에서 사람의 몸무게가 발판 밑에 있는 스위치를 작동시켜 모터를 움직이게 하거나 서게 한다고 하였다.
②, ③ 3문단에서 문에 사람이 접근하면 광전관 속으로 들어가는 빛을 가로막게 되고, 빛이 막히면 모터 회로가 작동해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게 된다고 하였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차장실에 있는 스위치를 움직임으로써 각 문에 장치되어 있는 엔진을 작동시켜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히게 한다고 하였다.

30. <답> ①
<보기>의 주요 내용은 '자동문 관련 안전사고'의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보기>와 이 글을 함께 읽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31~35] 문학-갈래 복합
[지문 분석]
(가) 통곡헌기

내[작가] 조카 친[허친]이 집을 짓고 통곡헌이라는 편액[널빤지나 종이·비단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문 위에 거는 액자]을 달았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세상에는 즐거워할 만한 일이 너무도 많은데, 어째서 통곡으로 집의 편액을 달았는가? 하물며 통곡이란 것은 상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부인네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 소리 듣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유독 그대는 사람들이 꺼리는 것을 어기면서 거처하는 곳에 걸어 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사람들의 궁금증]
친[작가의 조카]이 말하였다.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을 저버리고 시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기는 자입니다. 이 시절이 기쁜 것을 즐기기 때문에 저는 슬픔을 좋아하고, 시속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저도 또한 슬퍼하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달을 좋아하는 것에 이르면 저는 더러운 것처럼 그것을 버립니다. 오직 천하고 가난하고 곤궁하고 검약한 것을 보고 거기에 처하면 반드시 하는 일마다 그것을 어기려고 합니다. 항상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 통곡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집에 이것을 가지고 현판을 달았습니다."[허친의 대답 : '시속'에 대한 반발, 항상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바를 택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임]
내[글쓴이]가 그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무릇 통곡에도 또한 도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의 칠정 중에 움직여 감발하기 쉬운 것으로 슬픔만한 것이 없지요. 슬픔이 지극하면 반드시 통곡하게 되는데 슬픔이 이는 것도 또한 많은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일을 할 수 없어서 상심한 탓에 통곡을 한 사람은 가태부(가의)이고 흰색 실이 그 본바탕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한 사람은 묵적입니다. 갈림길이 동서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한 사람은 양주이며, 막다른 길에서 통곡을 한 사람은 완보병(완적)입니다. 시대와 운명을 만나지 못한 것을 슬퍼하여 스스로 인간 세상 밖에 자신을 놓아두고 통곡에 심정을 의탁한 사람은 당구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가슴에 품은 것이 있어서 통곡을 한 것이지, 이별을 가슴 아파하고 위축된 마음을 품어 자질구레하게도 아녀자의 통곡을 본받은 것은 아니었지요. 지금 시절을 이런 분들의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더더욱 볼 것이 없습니다. 나라 일은 날로 잘못되어 가고 있고 선비들의 행실은 날로 경박해져 갑니다. 친구들이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갈림길의 나뉘어진 것보다 더 심하며, 어진 선비의 곤액은 막다른 길에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모두 인간 세상 밖으로 은거하려는 계책을 가지고 있으니, 만약 여러 군자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를 직접 보시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차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팽함이나 굴원처럼 돌과 모래를 끌어안고 싶어할 것입니다. 친이 집의 편액을 통곡이라고 한 것은 역시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통곡이라는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것이 옳을 겁니다."[작가의 부연 설명 : 통곡의 진정한 도, 그릇된 시대상에 영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긴 것이므로 비웃지 말아야 함]
비웃던 자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물러가자, 이로 인하여 글을 써서 뭇 의심을 풀어 주는 바이다. [글을 쓰게 된 배경 제시]

(가) 허균, '통곡헌기'

• 해제: 문답법의 구성을 통해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집의 내력을 밝힘으로써 시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글쓴이는 불우한 시대를 맞아 비극적 삶과 죽음을 맞은 가태부, 묵적, 양주, 완적, 당구 등의 예를 들어 '통곡의 도'에 대해 말한다. 이들은 인간의 사소한 정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맞아 통곡을 한,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허균이 살았던 당시 시절은 '더더욱 볼 것이 없'는 즉, 더 불우한 시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절을 맞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에서 집에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 구성

* 사람들의 물음: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한 궁금증
* 친의 답: '시속'에 대한 반발
* '나'의 부연 답: 통곡의 진정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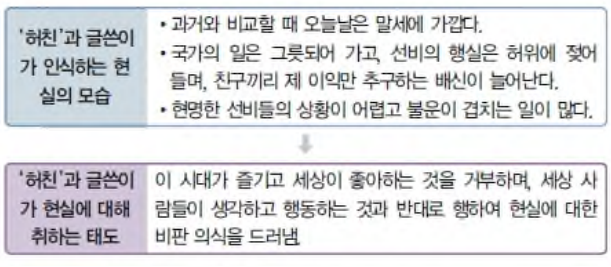
• 주제 통곡헌의 내력과 시대에 대한 비판

• 정리

1. 갈래	수필, 기(記)	2. 성격	비판적, 교훈적, 성찰적
3. 제재	통곡헌		
4. 구성	-사람들의 물음 :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한 궁금증 -친의 답 : '시속'에 대한 반발, 항상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바를 택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임 -'나'의 부연 답 : 통곡의 진정한 도, 그릇된 시대상에 영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긴 것이므로 비웃지 말아야 함		
5. 주제	통곡헌의 내력과 시대에 대한 비판		
6. 특징	(1) 문답을 통한 구성 (2) 유사한 사례의 열거, 예시 (3) 대조적인 삶의 태도 제시 (4) 평범한 아낙네의 울음과의 비교를 통한 통곡의 의미 강조		

• '통곡헌기'에서 대비되는 대상의 의미 비교

• '허친'과 글쓴이가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과 그에 대한 태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가인 허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다. 시대가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고, 자신들 또한 세태에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와 불화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력이 글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문답법의 구성을 통해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집의 내력을 밝힘으로써 시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불우한 시대를 맞아 비극적 삶과 죽음을 맞은 가태부, 묵적, 양주, 완적, 당구 등의 예를 들어 '통곡의 도'에 대해 말한다. 이들은 인간의 사소한 정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 때문에 통곡을 한,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허균이 살았던 당시 시절은 '더더욱 볼 것이 없'는 즉, 더 불우한 시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절을 맞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에서 집에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나) 윤선도, '몽천요'

상시런가 꿈이런가 백옥경[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가상적인 서울]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군선이 꺼리나다[임금(효종) 여러 신선, 여기서는 신하들, 반대 세력인 '서인 세력']
두어라 오호연월[아름다운 자연을 가리킴] 이 내 분일시 올탓다 //
<한양에 올라가 임금님께 하고자하는 말을 아뢰려 했으나 여러 신하가 자신을 꺼려하므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다고 생각함.>

풋잠에 꿈을 꾸어 십이루[중국 곤륜산에서 선인이 산다는 열두 채의 높은 누각]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군선이 꾸짖는다
어즈버[영탄법] 백만억 창생[수많은 백성]을 어느 결에 무르리 //
하늘이 무너진 때[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무슨 수로 기워낸고
백옥루 중사할 때[대궐(위태로운 나라)을 재건축할 때] 어떤 장인 일워낸고
옥황께 사뢰고자 하더니 다 못하여 오나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인재(충신)를 임금께 묻고자 했지만 배척하는 신하로 인해 묻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 옴.>

• 해제 : 이상을 이루지 못한 결핍감과 좌절감을 노래하고 있는 연시조이다. 보통 꿈과 천상은 현실에서의 좌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되지만,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를 윤선도의 실제 삶과 관련지으면, 옥황은 임금, 군선은 윤선도를 배척했던 신하들, 윤선도가 임금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려는 정치적 이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천상은 윤선도가 현실에서 겪은 좌절을 재확인하게 하는 아픔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구성

* 1연 : 천상에서의 좌절과 자연에서의 자기 위안
* 2연 : 경세제민의 이상
* 3연 : 이상을 이루지 못한 좌절과 안타까움

• 주제 이상을 이루지 못한 결핍감과 좌절감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자가 66세 때인 1652년(효종3)에 임금의 부름으로 동부승지가 되어 상경하였으나 뭇 신하들의 모함을 받게 되자 임금께 사직소를 올리고 은거하던 때에 지은 것이다. 세상이 무너질 때 어떤 어진 신하가 어지러운 나라를 구할 것인가를 임금께 여쭈

어 보고자 했으나 그 마저도 못하고 꿈에서 깨어났다는 내용을 통해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 황현, '절명시'

어지러운 세상[국권이 침탈되는 위태로운 상황] 부대끼면서 흰머리[화자(지식인)의 고뇌의 흔적]가 되었으니,
몇 번이나 버릴 목숨 아직 버리지 못하였구나.[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야 했었다는 자탄(반성적 태도)]
[오늘에 이르러 진정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
바람에 일렁이는 촛불 푸른 하늘을 비추네][ ] ⇨ 죽음으로 명예와 양심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엿보임
[1수] 국권 피탈의 현실과 순명(殉名)에 대한 결심
요망한 기운[일제의 국권 강탈 의도]이 가려서 임금별이 옮겨지니
[나라의 운명이 다함]
구궐[구중궁궐(임금이 있는 대궐)]은 침침하여 햇살도 더디 드네
[국권상실의 침통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
이제부터 조칙을 받을 길이 없으니
구슬 같은 눈물[국권을 잃은 화자의 슬픔]이 종이 가닥을 적시네.
[2수] 망국에 대한 슬픔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의인법, 활유법, [ ] ⇨ 감정이입-국권을 빼앗긴 치욕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 버렸어라.]
우리나라(대유법), [ ] ⇨ 역사에 대한 탄식 -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사가 단절되었다는 탄식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도 하구나.]
화자가 지식인임이 드러남, 역사에 대한 회고화자가 지식인임이 드러남, [ ] ⇨ 지식인의 고뇌(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현실적인 무력함)가 드러남
[3수] 지식인으로서의 자책
일찍이 나라를 지탱할 조그마한 공도 없었으니
단지 인(仁)을 이룰 뿐이요, 충(忠)을 이루진 못했어라.
[겨우 능히 윤곡(尹穀)을 따르려는데 그칠 뿐이요,
진동(陳東송나라 충신 - 간신을 탄핵하다가 참형을 당함)을 넘지 못했음이 부끄럽구나.]
[ ] ⇨ 고사 속 인물들을 인용하여 어려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자신을 반성함
[4수] 충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한탄

• 해제 : 구한말 선비의 충정과 지조가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치욕스런 상황에서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며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노릇에 대해 고뇌하는 선비의 절절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실제로 황현은 이 시를 남기고 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구성
* 1수 : 죽음에 대한 생각
* 2수 : 쇠락해 가는 왕조
* 3수 : 지식인으로서의 노릇에 대한 고뇌
* 4수 :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 주제 선비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한 고뇌

31. <답> ⑤
(가)에서는 '친'의 말을 통해 나라 일이 잘못되고, 선비들은 경박하며, 파벌이 나뉘어 있고, 어진 선비들은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나)에서는 군선으로부터 꺼림과 꾸짖음을 당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다)에서는 나라가 망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④ (나)에서 지상과 천상의 이원적 구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구조로 보기 힘들다. 또한 천상 역시 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좌절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가), (다)에서도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32. <답> ①
(가)에서는 사람들과 '친'의 문답을 통해 글쓴이의 조카 친이 집을 짓고 그 이름을 통곡헌이라고 한 까닭을 밝히고 있다(ㄱ). 또 친이 통곡의 도에 대해 말하면서 가태부, 양주, 완적, 당구 등의 예를 들어 이들이 살았던 시절과 '지금 시절'을 비교하여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음을 통해 현재 역시 통곡하고 싶은 부정적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ㄴ).
세상 사람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 대해 '친'으로 대변되는 글쓴이와 상이한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세태를 대변하는 정도로 보아야 한다. 세태를 대변하는 대상 (사람들)을 통해 글쓴이의 시각이 부각되는 것이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 통해 대상의 다양한 속성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유사한 상황으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공간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33. <답> ⑤
<보기>를 참고할 때, 윤선도가 경세제민의 뜻을 품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하늘이 무너진 때 무슨 수로 기워낸고'는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구절이다. 이 구절을 통해 윤선도가 어떻게 경세제민을 하려고 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① '옥황'은 천상의 왕을 가리키며, '백옥경'과 '십이루'도 각각 천상의 수도와 신선이 사는 누각을 의미하므로 이들 시어를 통해 작품의 공간이 천상, 즉 천계임을 알 수 있다.
② '오호연월'은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하므로 자연이 내 분에 맞다는 것은 작가가 자연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드러낸다.
③ '백만억 창생'은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언제 보살피겠는가 하는 탄식은 윤선도가 경세제민의 이상을 품었던 것과 관련된다.
④ '다 못하여 오나다'에서 알 수 있듯 작가 윤선도는 옥황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을 군선의 꺼림과 꾸짖음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 이는 <보기>에 나오는, 윤선도의 작품에서 천계로의 공간 이동이 이상이 충족될 수 없다는 결핍감만을 강조한다는 내용과 관련된다.

34. <답> ④
앞뒤 맥락으로 볼 때 '무궁화 이 나라가 이젠 망해 버렸구나'는 나라가 망해 버린 것에 대한 탄식, 화자가 느끼는 비통함을 표현한 구절이다. 나라가 망한 것을 세상의 변화로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구절에서 화자가 혼란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35. <답> ④
㉠ '시속 사람들'은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점에서 세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 '군선'은 화자와 옥황 사이를 가로막아 화자가 옥황에게 할 말을 못하게 만든다.

[36~38] 문학-현대소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우리 가족은 고향을 떠나 도시 변두리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는 노새로 연탄 배달을 한다. 그런데 평소 거뜬하게 올라가던 언덕에서 노새가 갑자기 멈춰 선다.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 않는다. 그때 마차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마차와 노새가 나자빠진다. 마차가 넘어지자 노새는 달아나 버리고,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나선다.

아버지[주인공]와 나[서술자 및 관찰자]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노새를 찾기 위해]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곳을 가나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나와 아버지에게 무관심함]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나와 아버지를 비유]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 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공간의 이동]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중략)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아버지의 처지와 닮음]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공간의 이동]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아버지와 나의 처지 : 막막함]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폿집[공간의 이동]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고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으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삶에 대한 의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음]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힝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노새 가족은 우리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극적 반전]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우.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를 찾았대?"
"찾고나 그러면 괜찮게요--노새는 간데온데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스적스적 문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시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함]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최일남, '노새 두 마리

• 해제 : 노새를 끌고 연탄 배달을 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통해 시대에 뒤처진 한 가족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현대 문명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노새의 존재를 통해서 현실 세상에 편입되지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노새(아버지)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힘겨운 삶과, 고향과 정신적 뿌리를 상실한 사람들의 불행한 삶을 그리고 있다.
• 구성
* 발단 : 우리 동네 옆에 새로운 동네가 생겼다. 말은 안했지만 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눈치이다.

* 전개 : 새 동네가 생겨 동네의 모습이 달라졌지만 우리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새 동네 사람들은 우리 노새를 신기하게 생각했다.
* 위기 : 평소 연탄을 싣고도 거뜬히 올라가던 언덕에서 노새가 멈춰 선다.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마차가 전복되자 노새가 그만 달아나 버린다.
[교재 수록 부분] * 절정 :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거리를 배회하지만 소용이 없다. 대폿집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며 '나'를 보고 웃자 나도 아버지를 따라 웃는다.
* 결말 : 집에 도착하자 노새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물건을 박살내서 순경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듣는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노새를 찾아 문 밖으로 걸어 나간다.
• 주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이주민의 불행한 삶

36. <답> ③
'나'와 아버지가 거리로 노새를 찾아 나서는 장면에서 '쇠사슬을 단 것처럼', '길 잃은 나그네 같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ㄴ). 또한 '나'라는 특정한 등장인물의 관찰자적 시선을 이용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ㄷ).
ㄱ 공간적 배경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나'와 '아버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ㄹ '나'가 사건을 체험한 것은 맞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37. <답> ②
'나'는 동물원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와 그 면모를 새로이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노새와 닮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세월의 덧없음(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나'는 자신과 아버지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도시인들의 메마른 인정을 경험하고 있다.
③ '노새'는 연탄 배달을 하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고 대폿집에서 '아버지'는 그 노새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술로 달래고 있다.
④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는 모습'에서 '아버지'가 일을 저지른 노새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노새를 부리는 자신의 가족이 자동차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쉽게 적응할 수 없는 처지임을 자각하고 있다.

38. <답> ⑤
이 글에서는 주막에서 '아버지'가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라고 말하며 '히힝'하고 웃자 그런 아버지를 정겹게 느낀 '나'도 '히힝' 하고 따라 웃는 것에서 부자가 서로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화자가 생각하는 아버지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아버지와 화자가 서로 접촉하면서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① 이 글에서는 노새로 연탄을 배달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에서는 '세상의 빗물에 취해 버린 이마와 가슴', '헌 구두짝에 담긴 하루'에서 고달픈 아버지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아버지와 '노새'를, <보기>에서는 '붉은 엉겅퀴꽃'과 아버지를 연계시키고 있다.
③ 이 글과 <보기>에서의 화자는 힘겹게 살아가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아버지가 대폿집에서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보기>에서는 '벗은 영혼은 못쓰는 타자기처럼 뻑뻑하지만 글쇠 몇 개 언제나 굳건히 일어선다'와 '그런 아버지의 옹이에 나는 옷을 건다(의지한다)'는 표현, 그리고 '새벽에 일을 나가는 아버지의 툭툭 불거진 쇳빛 혈관'에서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9~42] 문학-고전산문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김진희[반동 인물]와 이혈룡[주동 인물]은 함께 공부하면서 출세하면 서로 돕기로 맹세했다. 그 후 김진희는 과거 급제하여 평양 감사[김진희의 상황]가 된 반면 이혈룡은 곤궁한 처지가 되었다.[이혈룡의 처지] 혈룡은 진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진희는 혈룡을 반가워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한다.[김진희의 배신] 이때 관기인 옥단춘[주인공]이 혈룡의 비범함을 보고 뱃사공들을 매수하여 구출하고, 혈룡의 본가에도 경제적으로 원조하여 혈룡이 과거를 치르게 한다. 암행어사가 된 혈룡은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가고 옥단춘은 변함없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역졸들과 약속한 시각이 다가오자 이혈룡[주인공]은 그 남루한 행색으로 성큼성큼 연광정 대상으로 올라가니,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와서 혈룡을 잡아서 층계 밑에 꿇려 놓으니, 김 감사[예전 친구였던, 김진희]가 대상에서 호통을 치니라.
"너 이놈 이혈룡이로구나.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 보라!"
"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희야, 들어 보라.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누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알림]도 못하고 근근이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네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의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 내 물귀신 될 원혼이 오늘 또다시 네가 연광정에서 호유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혈룡의 귀신이 원수를 갚으러 왔다는 위협에 김 감사도 등골이 섬뜩하여 좌우 비장을 노려보며 어떻게 하랴 하고 물으니, 비장이,
"아무래도 참말 같지 않사옵니다. 죽은 원혼이 어찌 사람 모습이 되어 올 수 있습니까? 그때 데리고 갔던 사공을 불러다가 문초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사공을 빨리 잡아들이라는 영을 내리니, 나졸들이 청령[윗사람의 명령을 주의깊게 들음]하고 나가서 잡아가면서 어르기를,
"야단났다, 야단났다. 너희들 사공 놈들 야단났다. 어서 빨리 들어가자."
하고, 사공들의 덜미를 잡고 연광정 밑으로 가니,
"사공 놈을 잡아왔소."
나졸들의 복명하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니라.[과장법]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연회장의 옥단춘은 사공이 매에 못 이기고 사실대로

불면 자기도 죄를 당할 것이고, 그보다 귀신 아닌 자기의 서방님이 능지처참될 것을 생각하고 전신이 벌벌 떨렸으니,[인물의 심리 상태 직접 제시] 김 감사는 형방을 불러서 형구[형벌을 가하거나 고문을 하는 데에 쓰는 기구]를 차려 놓고,

"그놈을 능지가 되도록 때려서 문초하라."

추상같은[위엄이 있고 두려울 정도로 서슬이 푸르다.] 엄명을 내리매, 형방조차 겁을 내고 뱃사공들을 치면서 얼러 대기를,

"이놈들 들어 보라. 저번에 너희들은 저기 저 양반을 영대로 물에 던져 죽였느냐? 바른대로 고하라!"

사공들은 악착같은 악형에 못 이기고 여차여차하였다고 사실대로 토설[이야기하다.]하고 말았으니, 김 감사는 다른 형방에게,

"저 이혈룡은 목을 베어 죽여도 죄가 남을 놈인데, 아까 형방놈은 내 앞에서 저놈을 양반이라고 불러서 존대하였으니, 그 형방놈도 혈룡 놈과 죄가 같다!"

하고, 먼저 형방을 잡아 꿇리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책상을 치면서 호통치기를,

"전부터 내 수청도 거역한 요망스러운 기생년 옥단춘을 잡아내라!"

좌우 나졸이 일시에 달려들어 소복 단장한 채로 분결 같은 손목을 덥석 잡아서 끌어내리매, 연광정이 뒤집힐 듯이 살벌한 형장으로 일변하였으니, 평생에 이런 봉변을 만나 보지 않다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자 수족을 벌벌 떨면서 이혈룡을 돌아보고,

"여보시오, 이것이 웬일이오? 내가 그처럼 집을 보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였는데 정말로 귀신이 되려고 여기 왔소? 무슨 살매가 들려서 죽을 곳을 찾아왔소? 내 집의 재물만으로도 호의호식 지낼 텐데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이오? 애고애고 우리 낭군 어찌하면 살 수 있소? 요전번에 죽을 목숨 살려 백년해로 언약하고 즐겁게 살려 하였더니, 일 년이 못 되어 이런 죽음 웬일이오? 애고애고 우리 낭군 야속하고 원통하오.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마는, 낭군님은 대장부로 생겨나서 공명 한번 못 해보고 억울하게 황천객이 되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오. 아아, 낭군 팔자나 내 팔자나 전생의 무슨 죄로 이다지도 험악하단 말인가? 사주팔자가 이럴진대 누구를 원망하겠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우리이매, 저승에서 죽어도 후세에 다시 만나 이승에서 미진한 우리 정을 백 년 다시 살아 보십시다. 임아 임아, 우리 낭군 어찌하여 살아날까? 아무리 원통해서 저승에 만나자고 빌어 봐도 지금 한번 죽어지면 모든 것이 허사로다."[옥단춘의 한탄]

하며, 통곡하는 옥단춘의 정상을 누가 아니 슬퍼하랴.[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그러나 이혈룡은 태연한 말로 옥단춘에게 다짐하니라.

"춘아 춘아 내 사랑 옥단춘아, 너무 슬피 우지 마라. 네 울음 한 마디에 내 간장 다 녹는다. 내가 죽고 너 살거든 내 원수를 네가 갚고, 네가 죽고 내가 살면 네 원수를 내가 갚아 주마."[복선의 역할] (중략)

어사또의 호령이 내리자, 좌우의 나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육칠월 번개같이 곤장 태장으로 두들겨 대니 가로되,

"애고애고, 어사또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제가 죽을죄를 진 것은 저도 모를 귀신이 시켜서 그랬사오니, 죽고 사는 것은 어사또 처분이오니, 죽을죄 지은 놈이 무슨 말씀하오리까. 처분만 바라오며 잔명을 비옵니다."

"네 이놈, 나뿐 아니라, 죄 없는 옥단춘까지 나와 함께 죽이려 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네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살려 둘 수 없다."

어사또는 여기서, 전에 자기를 배에 싣고 물에 넣으러 가던 사공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 이 놈을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 버려라."

사공들이 어사또의 영을 듣고 김진희를 끌어다 배에 싣고 만경창파 물위로 떠나기 시작하니라. 이때 어사또[이혈룡]가 어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 놈의 죄는 만 번 죽여도 부족하지만, 나로서 옛정을 생각하니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나졸을 불러서 분부하니라.

"너희들 급히 배를 따라가서 그 양반을 물속에 한참 넣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도루 건져서 배에 싣고 오너라."

"네잇." 하고, 나졸들이 강을 향하여 달려갈 적에, 별안간 뇌성벽력이 일어나더니 김진희를 벼락 쳐서 시체도 없이 분쇄해 버렸다.[권선징악]나졸들과 사공들이 돌아와서 김진희가 천벌의 벼락을 맞고 머리털 하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연유를 아뢰니, 이혈룡 어사또는 그래도 살려 주려 하였던 김진희가 천벌로 참혹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옛정을 생각하고 슬퍼하더라.

작자 미상, 「옥단춘전」

• 해제 : 작자 미상의 조선 후기의 애정 소설이다.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 거의 없어 전기성이나 우연성이 적고, 판소리 사설과 유사한 문체로 쓰였으며, 양반과 기생의 사랑, 어사출도, 봉고파직, 권선징악 등 「춘향전」과 서사 구조가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 주제 : 우정을 배신한 친구에 대한 복수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

• 전체 줄거리 : 황성에 남다른 우정을 지닌 김정, 이정이란 두 재상이 있었다. 김 재상은 진희, 이 재상은 혈룡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동갑으로 함께 자라 같이 공부하며 상부상조하자고 굳게 언약한다. 이후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된 반면 이혈룡은 노모와 처자와 빈궁하게 살아가는 형편이 된다. 할 수 없이 혈룡은 평양으로 진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다. 혈룡은 고생 끝에 간신히 진희를 만나기는 했으나, 진희는 혈룡을 도와주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사공을 시켜 대동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다. 이때 혈룡의 비범함을 알아차린 옥단춘은 사공을 매수하여 그를 구한다. 혈룡은 옥단춘과 인연을 맺고 많은 도움을 받는다. 혈룡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된다. 혈룡은 걸인의 차림으로 옥단춘을 다시 찾아가 변함없는 애정을 확인한다. 걸인으로 분한 혈룡이 감사의 잔치에 나아가 감사를 힐책하자, 감사는 크게 노하여 혈룡과 옥단춘을 함께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혈룡이 죽음에 임박하여 '어사출도'를 외치고 감사를 봉고파직시킨다. 혈룡은 진희의 목숨만은 살려 주려 했으나 진희는 벼락을 맞아 죽는다. 혈룡은 벼슬이 점점 올랐으며, 옥단춘은 '정덕 부인'이 되어 함께 살았다.

• 춘향전]과의 관계

[옥단춘전]은 [춘향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혈룡과 옥단춘의 사랑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든가, 혈룡이 어사의 신분을 숨기고 옥단춘을 찾아간 일, 암행어사 출도 장면 등이 [춘향전]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 작품은 [춘향전]의 모방작, 또는 아류작이라고 평가 되어왔다. '이혈룡:이몽룡, 옥단춘:춘향, 김진회:변학도'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관계가 작품의 실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작품의 주제 의식도

信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옥단춘전]을 단순히 [춘향전]의 아류작이나 모방작으로 재단하려는 태도는 잘못이다.

• 갈등 구조

이 작품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갈등 구조는 평양 감사와 이혈룡의 대립이다. 이혈룡과 김진회는 명망 있는 양반 가문으로 우의가 두터운 집안이었다. 그러나 혈룡이 아주 어려운 처지로 전락한 반면, 진회는 평양 감사가 되어 부귀를 누린다. 아버지 대에서는 다 같이 고위 관직을 가졌던 집안이 그 자식 대에서 이처럼 처지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양반층의 분해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혈룡과 평양 감사의 대립은 바로 이 현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구차하게 푼전이나 얻으러 온 혈룡을 죽이려는 김진회의 태도는 분해된 양반층의 대립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갈등 구조로 옥단춘과 사회상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옥단춘은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서도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려는 진취성과 함께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녀가 혈룡에게서 미래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면에는 자유 의사에 의한 애정의 실현 의지와 함께 신의를 저버리고 친구를 죽이려는 감사의 폭압에 대한 항거 의식이 깔려 있다.

39. <답> ③

이 글은 다른 고전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심리 등을 서술자가 직접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① 배경에 대한 묘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② 등장인물 중 성격의 변화가 나타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나졸들의 복명하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더라.', '좌우의 나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육칠월 번개같이 곤장 태장으로 두들겨 대니' 등의 과장이 나타나 있으나, 인물을 희화화하여 드러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김진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것은 전기적이며 우연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40. <답> ⑤

김진희가 옥단춘을 잡아들이면서 하는 말을 보면 옥단춘은 기생의 신분이기에 김진희의 수청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기에 김진희의 분노를 샀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수청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① 옥단춘은 죽음을 앞둔 위기의 상황에서도 혈룡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③ 혈룡은 옛정을 생각하여 김진희를 차마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며 김진희에게 겁만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나졸에게 내리고 있다.

④ 김진희는 형방이 혈룡을 양반이라고 불러 존대하였다는 이유로 혈룡과 죄가 같다는 야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41. <답> ⑤

김진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를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비로운 분위기나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은 이 글의 결말과 관련하여 타당한 지적이라 할 수 없다.

① 이 글은 이혈룡과 김진희의 우정과 갈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옥단춘의 애정이 중요한 사건 전개의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참된 우정, 또는 참된 애정의 조건' 정도로 볼 수 있다.

② 이혈룡의 어사또 출도 장면은 관객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편집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여러 대 동원하여 당황하는 김진희의 모습이나 관리들의 모습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③ 이미 관객들은 이혈룡이 어사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옥단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이 김진희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절박감과 사랑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애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④ 이혈룡의 경우, 자신이 언제든지 어사또 출도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옥단춘의 걱정과 한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어조와 표정을 보여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42. <답> ③

㉠에는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을 의미하는 '명재경각'이, ㉡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고 흉악하다.'는 의미의 '패악무도'가, ㉢에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이라는 뜻의 '노심초사'가, 그리고 ㉣에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고진감래'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이라는 의미의 '자가당착'은 어느 곳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43~45] 문학-고전시가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헐대 고쳐 올라앉으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야 다 뵈나다.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사.[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부용을 꽂았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었는 듯.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지조 절개 강직함 상징]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사뢰리라.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어와 너[망고대, 혈망봉을 의인화]로구나.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개심대 고쳐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 이천 봉을 역력히 세어 보니
봉(峯)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저 기운 흩어 내어 인걸을 만들고자.[우국지정]
형용도 끝이 없고 체세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 생겨날 때 자연히 되었지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하기도 유정하구나.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 본 이 그 뉘신고.
동산 태산[공자와 관련된 지명]이 어느 것이 높던고.

노국(魯國)[공자가 살았던 시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작단 말인고.
어와 저 지위[호연지기]를 어이하면 알 것인고.
오르지 못하거든 내려감이 고이할까.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의 너럭바위 화룡소 되었구나.
천년 노룡(老龍)[화자 자신]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晝夜)에 흘러내려 창해에 이었으니,
풍운[선정의 기회]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내리려는가.[선정에의 포부]
음애에 시든 풀[백성]을 다 살려 내려무나.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조선 선조 13년(1580)에 송강 정철이 그의 나이 45세 되는 정월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3월에 관동 팔경을 두루 유람하고서 그 도정과 산수, 풍경과 고사, 풍속 등을 읊은 가사이다. <관동별곡>은 조선시대 가사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숙종 때 김만중은 우리 나라 참된 문장은 송강의 <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세 편이라고 칭송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의 분량은 2율각(律刻) 1구로 헤아려 총 293구인데, 내용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에서는 관찰사로 임명되어 여행에 오르는 동기를 밝히고, 본사에서는 부임지인 원주에 도착한 후 다시 관내를 순행하기 위해 길을 떠나 금강산 내외를 구경하면서 감상을 옮겼다. 결사에서는 동해의 달맞이와 꿈속에서 만난 신선과의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이 <관동별곡>은 기괴한 금강의 산수와 미려한 동해의 풍경, 그리고 장엄한 대자연을 붓끝으로 약동하여 신비에 대한 묘사와 감탄이 극치에 다다르고, 용어는 모두 34언 어주에 맞추어져 있으며, 한문 사용이 비교적 적다. 가장 특이한 점은 '연군(戀君)과 선어(仙語)'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뒤섞여 그 맥락을 이었는데, 이 중에서 연군은 아첨과 허위가 아닌 진지한 작자의 태도임을 느낄 수 있다. 절묘한 언어의 조탁과 유연한 음률의 조화가 일품이며, 감탄사의 적절한 사용과 대구의 조화, 생략법 등을 사용하여 상당히 긴 가사지만, 독자로 하여금 조금도 지리한 감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관동별곡>은 종래의 많은 유람가사가 미치지 못할 만큼 독창적이며 서정적인 작품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작이다.

• 구성(짜임)

1. 기(起) : 관찰사 부임과 관내 순력
2. 승(承) : 내금강 유람
만폭동 → 금강대 → 진헐대(연군 충절) → 개심대 → 화룡소 → 불정대 → 12 폭포
3. 전(轉) : 관동팔경 유람
총석정 → 삼일포 → 의상대 → 경포 → 죽서루
4. 결(結) : 작가의 풍류(갈등의 해소)

• 요점 정리]

◆ 관동팔경 : 강원도 동해안의 여덟 군데의 명승지
◆ 갈래 : 가사(양반가사, 기행가사, 정격가사(마지막 구가 시조의 종장과 유사))
◆ 연대 : 선조13년(1580년), 작자가 45세 때
◆ 문체 : 가사체, 운문체, 화려체
◆ 사상적 배경 : 유교의 충의사상과 도교의 신선사상
◆ 표현상 특징
㉠ 3·4조 4음보
㉡ 영탄법과 대구법의 묘를 살렸고, 적절한 생략법의 구사로 문장의 멋을 살림.
㉢ 작자의 호탕한 기상이 드러남
㉣ 표기는 숙종때의 표기
㉤ 경치의 객관적 묘사에 그치지 않고, 작가 자신이 자연에 몰입하여 새로운 시경과 시상을 창조함.
◆ 영향 관계
경기체가 안축의 <관동별곡> (1330년) → 가사 백광홍의 <관서별곡>(1556년) → 정철의 가사 <관동별곡>(1580년)
◆ 의의 : 서정적인 기행가사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승화시킨 가사
◆ 주제 : 관동 지방의 절경과 풍류 및 연군·애민의 정
◆ [관동별곡]에 나타난 함축적 의미
㉮ 금강산 유람 ⇒ 위정자로서의 책임감 속에서 사유 <갈등>
㉯ 동해 유람 ⇒ 인간 본연의 모습 발견과 개인적 욕구 <갈등>
㉰ 밤중의 꿈 ⇒ 인간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자리 <해소>
※[관동별곡]은 기행문이면서 동시에 인간 본연의 갈등을 표출해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 송강 가사에 대한 평가
① 이수광의 지봉유설 : 아국가(我國家).., 정철소작최선(鄭澈所作最善)…, 성행어후세(盛行於後世)
② 홍만종의 순오지 : …… 신악보지절조야(信樂譜之絶調也)
③ 김만중의 서포만필 : 송강 관동별곡 전후미인가 내아동지이소자고좌해 진문장 지차삼편(松江 關東別曲 前後美人歌 乃我東之離騷 自古左海 眞文章 只此三篇)

43. <답> ⑤
관동별곡 전편을 보면 계절감을 그린 부분이 여러 곳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지문에는 계절감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

44. <답> ③
[A]는 진헐대에서 바라본 산들의 모습과 그것을 보고 느낀 감상을 그리고 있고, [B]는 개심대에서 바라본 만이천봉과 비로봉의 모습과 느낌을 그리고 있다. [C]는 화룡소에 와서 화룡소의 모습과 느낌을 그렸다. [A]와 [B]는 원경을 그린 것이고 [C]는 근경을 그린 것이다.

45. <답> ③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 본 이 그 뉘신고.'는 '비로봉 최정상에 올라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뜻으로 자신은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공자와 같은 학문적인 경지에 자신은 감히 오를 수 없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지 높은 벼슬에 대한 야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